



신한생각 4919호

Top down

중국전략

3분기 중국주식 전략: 내유외강(內柔外剛)

Econ Signal

경제분석: 경기 회복세 확산이 억제되는 경제 환경

채권전략

3Q 전망: Data Dependent

Bottom up

기업 분석

HL만도 (204320/매수) 몰려오는 수주

넥스틴 (348210/매수) 2H24 신규 장비 가시화

해외기업 분석

에어버스 (AIR.PA) 예상치 못한 가이던스 하향

◆ 해외 주식 및 ETF 추천 종목

[주식] 테슬라, 버티브, 일라이 릴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베이평화창, 잉웨이커, 히타치
[ETF] 미국 헬스케어

◆ 국내 주식 추천 종목

[MP]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 VS 소매(유통), 에너지, 철강 ↓
[중소형주] 티앤엘, 토비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코스메카코리아, 대한유화, 태광, 인카금융서비스, 원익QnC, 파라다이스, SOOP

KOSPI
2,774.39 (+0.35%)

KOSDAQ
841.99 (+0.06%)

KOSPI200선물
381.95 (+0.33%)

원/달러 환율
1,387.50 (-1.50원)

국고 3년 금리
3.187 (-0.7bp)



3분기 중국주식 전략: 내유외강(內柔外剛)



China Equity Strategist

신승웅

☎ (02) 3772-3175

✉ aidenshin@shinhan.com

3Q24 key: ① 대외수요 > 대내수요 ② 3중전회 ③ 업종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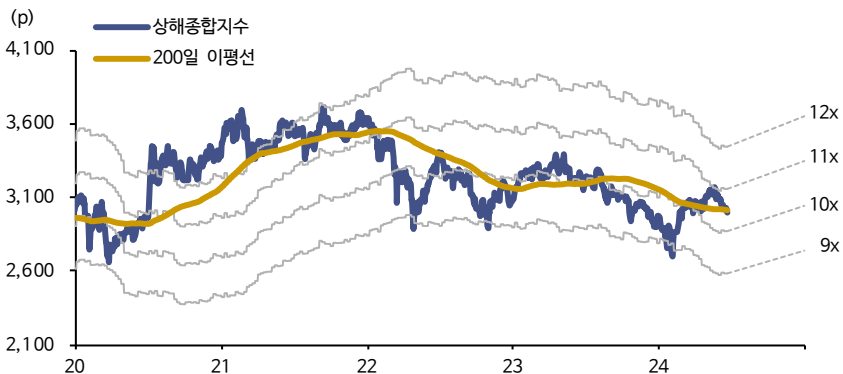
2분기 중화권 주식시장은 ‘국9조’ 효과 소멸과 내수 회복 지연 우려에 상승 모멘텀 약화되며 반락했다. 주식시장 부양책과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반한 멀티플 리레이팅은 일단락되었다는 판단이다. 부진한 내수를 대외수요 회복이 상쇄하는 구도가 이어진다. 3분기에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확대될 전망이다. 서방진영과의 관세 마찰은 주식시장에 분명 불편한 노이즈다. 하지만 이를 타개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한다. 압도적인 수출경쟁력을 지닌 중국기업들의 ‘Invasion(침공)’은 계속될 전망이다.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증가율과 모멘텀 모두 우위인 품목은 IT하드웨어(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변압기, 자동차다.

3분기 상해종합 2,800~3,300p. 12MF EPS 전약후강 경로 예상

3분기 상해종합 밴드는 12MF PER 10~11배를 반영한 2,800~3,300p로 제시한다. 전약후강 경로를 예상한다. 12MF EPS는 2분기 말을 저점으로 상향 조정을 타진할 공산이 크다. 다만, 매크로 지표 개선이 3분기 중후반부로 지연된다면 EPS에 갖는 눈높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 3중전회 전까지 관망심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부양책 규모와 정책 기조를 확인한 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3중전회에서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신품질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를 제시할 전망이다. ‘양’에서 ‘질’로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핵심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이다. 3대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과 첨단제조업(반도체+AI) 정책 강화를 예상한다. 주도주 쉼터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3분기 상해종합지수 밴드 2,800~3,300p (10~11x)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3분기 중국 주식시장 전망: 내유외강(內柔外剛)

3Q24 key: ① 대외수요 > 대내수요 ② 3중전회 ③ 업종별 차별화
부진한 내수를 대외수요 회복이 상쇄하는 구도 연장

3분기 순수출 성장기여도 확대 예상. 미국, 유럽과의 관세 마찰은 리스크 요인이나 이를 돌파할 수출주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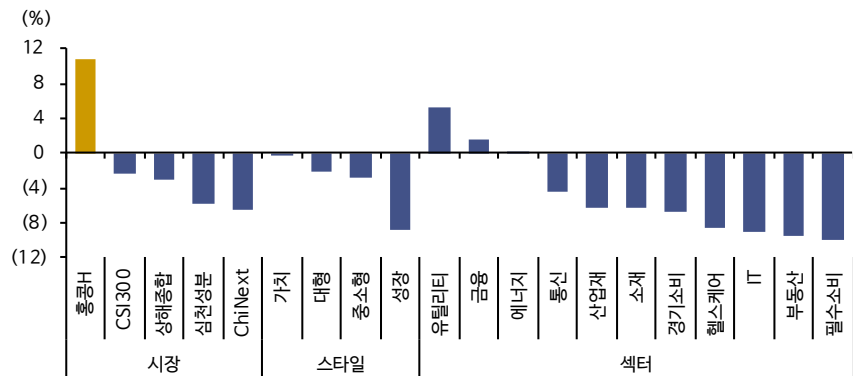
2분기 중화권 주식시장은 ‘국9조’ 효과 소멸과 내수 회복 지연 우려에 상승 모멘텀 약화되며 반락했다. 주식시장 부양책과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반한 멀티플 리레이팅은 일단락되었다는 판단이다. 펀더멘털보다 앞서간 주가는 되돌림의 과정을 소화 중이다. 7월 예정인 3중전회 전까지 관망심리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매크로 지표 개선과 기업이익(EPS) 반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회 이후 부양책 집행에도 주택시장 부진 여파에 실물경기로 온기 확산이 지연된다. 5월 소매판매는 예상을 상회했으나 노동절 연휴 특수와 이구환신 정책 효과의 영향이 컸다. 재화소비 반등에도 지속성에 검증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회복세가 둔화되며 부진한 내수 경기 부담이 확인된다. 서베이 지표에서도 상이한 흐름이 나타난다. 5월 통계국 제조업 PMI는 49.5로 3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전환된 반면, 차이신 제조업 PMI는 51.7로 22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자는 국영·내수기업 중심으로, 후자는 민간·수출기업 중심으로 집계되는 영향이다.

부진한 내수를 대외수요 회복이 상쇄하는 구도가 이어진다. 3분기에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확대될 전망이다. 물량 ‘밀어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가격도 연초 바닥에서 반등이 확인된다. 미국, 유럽과의 관세 마찰은 리스크 요인이나 이를 돌파할 수출주에 주목한다. 내수 회복은 3분기 중후반부로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양책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플레이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반전의 트리거가 될 이벤트는 3중전회다. 부동산 해법과 주도주 걸러를 결정할 산업정책 방향성 제시가 예상된다.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 등 과감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반등을 재개할 공산이 크다.

2분기 중화권 주식시장 성과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차이나 인베이션: 제조업 경쟁력에 기반해 세계 수출시장 장악

중국 주요 수출품목 변화: 저위기술에서 중고위기술로 도약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 정책
시행. 주력
수출품목이
중저위기술에서
기술집약적인
중고위기술 품목으로 확장

무역전쟁 이후 미국은 중국과 무역 디커플링을 단행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위축됐다.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고물가, 고금리 환경 속 수요 부진이 이어지며 중국발 수입이 감소했다. 중국은 선진시장에서 부진한 수출을 ASEAN,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만회하고 있다. 수출처 다변화 노력에 중국 수출에서 신흥시장 비중은 2023년 43.6%까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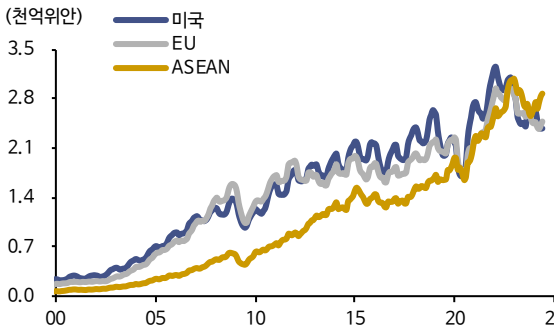
낮은 인건비와 기술혁신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WTO 가입 전 3.9%에서 2023년 14.2%까지 상승했다. 아세안(22.9%), 아프리카(17.2%), 중동(15.4%) 등 핵심 신흥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중국 정부는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했다. 그 결과 주력 수출품목이 중저위기술에서 기술집약적인 중고위기술 품목으로 확장됐다. 2023년 기준 수출 상위 품목은 통신기기(6.5%), 반도체(5.8%), 컴퓨터 및 주변장치(4.4%), 자동차/전기차(2.3%), 배터리(2.1%)다.

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저위기술에서 중고위기술로

구분	2005년		2015년		2023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컴퓨터	10.0	통신기기	9.3	통신기기	6.5
2	송신기기	4.1	컴퓨터	6.0	반도체	5.8
3	기계 부품	3.8	반도체	4.5	컴퓨터	4.4
4	전자제품 부품	2.4	조명기구	1.6	자동차(전기차)	2.3
5	반도체	1.9	레이저	1.5	배터리	2.1
6	레이저기기	1.5	가구	1.5	기타 원자재	1.9
7	여성 의류	1.4	기계 부품	1.3	자동차 부품	1.6
8	통신기기	1.2	자동차 부품	1.3	석유제품	1.4
9	편물원단 의류	1.2	케이스/가방	1.2	변압기	1.4
10	변압기	1.1	모니터	1.2	조명기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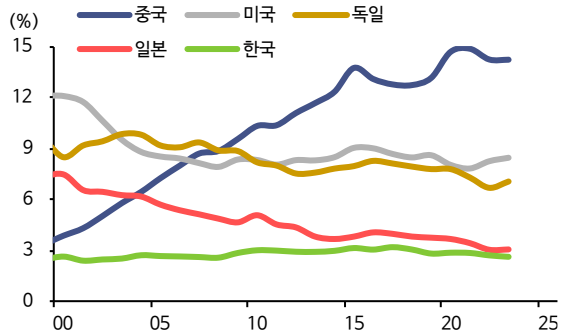
자료: Trademap, 신한투자증권 주: HS code 4자리 기준

중국 3대 수출지역 6개월 누적 수출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WIND, Trademap, 신한투자증권

관세 마찰은 주식시장에
분명 불편한 노이즈.
하지만 이를 타개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업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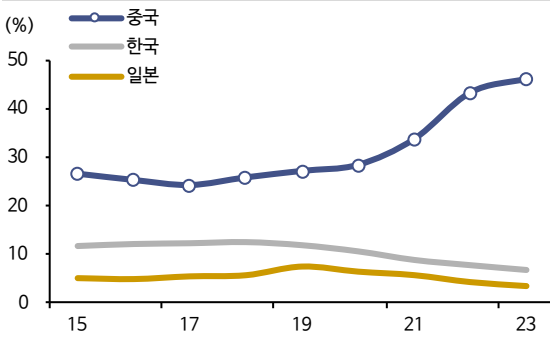
핵심 수출품목 세계 점유율 가파르게 상승. 고율 관세를 타개할 기업에 주목

주력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5~2023년 통신기기는 배터리는 26.7%에서 46.2%, 자동차는 0.6%에서 8.8%로 확대됐다. 경쟁국 대비 30~40% 이상 낮은 수출단가 통해 수출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덤핑 수출 품목은 섬유, 철강 등에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서방진영은 고율 관세 카드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핵심 전략산업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 전기차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00%로, 2차전지는 현행 7.5%에서 25%로 상향했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금번 관세 인상 규모는 180억달러로 전체 미국향 수출의 3.6%에 불과하다. 2차전지(20.1%) 제외하면 미국향 수출 비중 한 자릿수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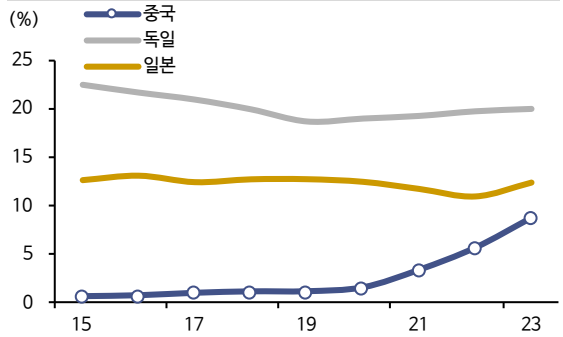
중국은 미국과 무역 디커플링을 상수로 인식한다. 문제는 EU 등 기타 우방국 동참 여부다. 지난 6월 EU는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예고했다. 현행 10% 관세에 더해 상계관세(17.4%p~38.1%p)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 마찰은 주식시장에 분명 불편한 노이즈다. 하지만 이를 타개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한다. BYD의 경우 추가 관세를 적용해도 유럽산 전기차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다. 압도적인 수출경쟁력을 지닌 중국 업체들의 '침공'은 계속될 전망이다.

배터리 수출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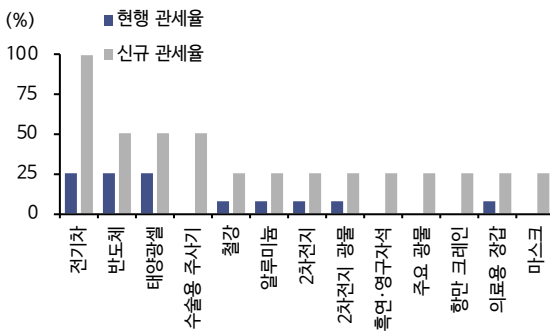
자료: Trademap, 신한투자증권

자동차 수출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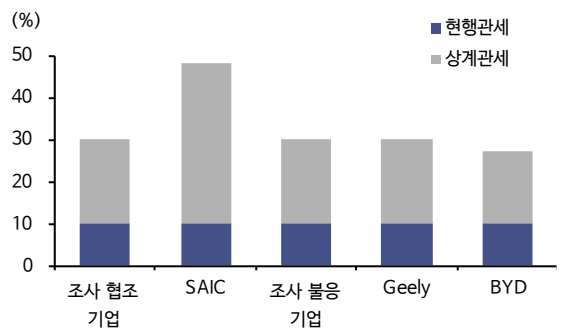
자료: Trademap, 신한투자증권

미국의 중국산 관세율 인상안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율 인상안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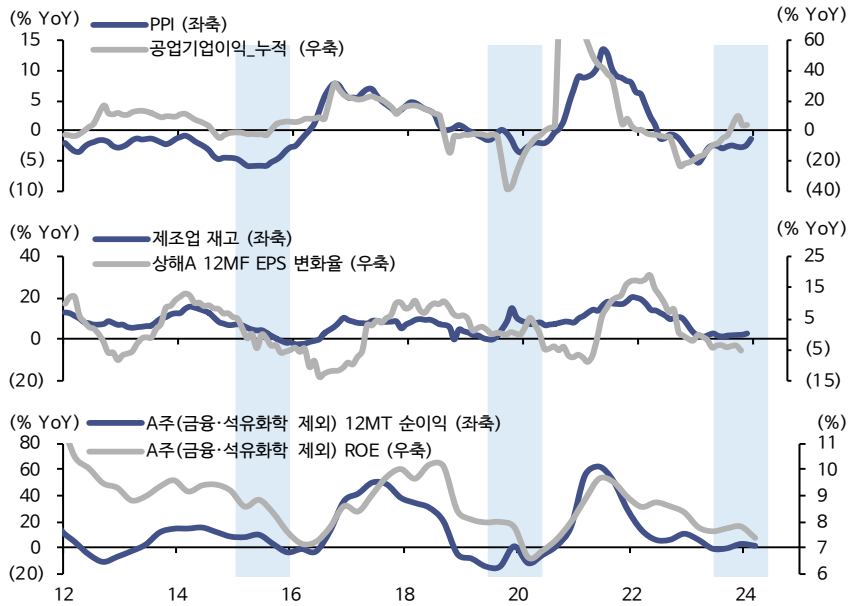
PPI 3분기 중 (+) 전환
가능성에 무게.
기업이익(EPS)
반등 뒤따를 전망

이익(EPS)은 가격(PPI)의 함수. 판가 인상 업종에 기회가 있다

중국 경기와 기업이익 레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가격이다. 특히 PPI(생산자 물가)는 재고사이클-기업이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시작이다. 디플레이션 탈출의 선결조건은 과감한 부양책 집행과 주택시장 부진 탈피다. 정부주도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이 강화된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은 유효하다.

수출 밀어내기로 제조업 재고는 상당 부분 소진됐다. 내수 회복이 더해진다면 가격은 완만하게 회복될 공산이 크다. PPI는 작년 7월을 저점으로 반등 시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나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3분기 +0.1%로 (+) 전환될 전망이다. 기업이익(EPS)은 현재가 저점일 공산이 크다.

Deflation 속 가격을 올리는 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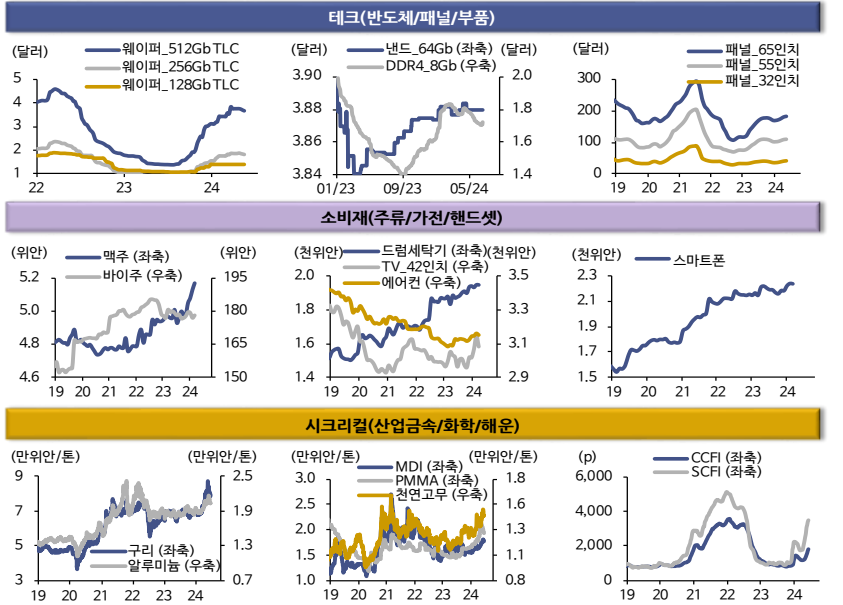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도 판가를 인상하는 업종은 반도체/IT하드웨어다. 글로벌 IT 업황 회복 국면에서 정부주도 IT CapEx 강화가 더해진다. 로컬의 웨이퍼, 낸드, D램 가격 공히 회복 국면이다. 중국이 주도권을 지닌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도 상승 흐름이 목도된다. 스마트폰 등 IT 핸드셋 재고소진이 일단락된 영향이다.

일부 소비재 품목에서도 판가 인상이 관찰된다. 음식료에서는 고가소비로 여겨지는 바이주, 와인인 판가 인하하는 반면, 매스소비인 맥주는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전업계에서도 세탁기,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인상했다.

시크리컬에서는 제조업 회복 반영하는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금속과 MDI, PMMA 등 일부 화학 품목은 뚜렷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른 해상운임과 선가 상승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산업은 실적 개선과 주가 회복이 동반되고 있다. 결국 판가를 인상하는 산업에 답이 있다.

Deflation 속 가격을 올리는 산업들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반전의 트리거가 될 3중전회. 부동산 부양책과 산업정책이 핵심

관전포인트 ① 신품질 생산력 공식화, ②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 규모

3중전회 이후 재고소진 정책을 비롯한 추가 부양책 집행 예상. 주식시장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최고 지도부 선출하고 총 7차례의 전체회의(중전회) 개최한다. 3중전회는 통상 향후 5년 국정 방향과 경제 로드맵을 제시해 가장 중요한 중전회로 여겨진다. 7월에 개최될 금번 3중전회는 서방진영의 첨단기술 통제와 고율 관세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확인할 중대한 이벤트다.

3중전회에서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신품질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를 제시할 전망이다. '양'에서 '질'로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핵심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이다. 3대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과 첨단제조업(반도체+AI) 정책 강화를 예상한다. 주도주 켜리는 더욱 선명해질 공산이 크다.

부동산 부양책 집행에도 가격과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하회한다. 5/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주택 매입규모는 약 62.5만채로 추산된다. 5월 말 디벨로퍼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재고는 약 390만채다. 1차 재고소진 규모는 전체 미분양 물량의 16%에 그친다. 재고소진주기로 보는 합리적 재고 레벨은 200~250만채다. 추가적으로 50~100만채 이상 재고 소화가 필요하다.

3중전회 이후 재고소진 정책을 비롯한 추가 부양책 집행이 예상된다. 부양책 규모와 정책 강도에 따라서 주식시장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3분기 중반부까지는 정부 정책에 대응한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유효하다.

3분기 상해종합 2,800~3,300p. 12MF EPS 전약후강 경로 예상

업종전략: ① 수출 모멘텀(조선, IT하드웨어, 변압기), ② 첨단제조(반도체/AI)

3분기 상해종합 밴드
2,800~3,300p. 수출주,
첨단제조 중심 압축 포트
폴리오로 대응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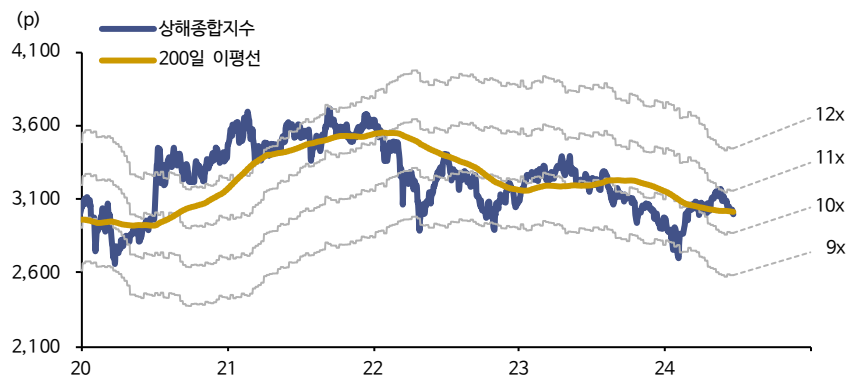
3분기 상해종합 밴드는 12MF PER 10~11배를 반영한 2,800~3,300p로 제시한다. 전약후강 경로를 예상한다. 12MF EPS는 2분기 말을 저점으로 상향 조정을 타진할 공산이 크다. 다만, 매크로 지표 개선이 3분기 중후반부로 지연된다면 EPS에 갖는 눈높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 3중전회 전까지 관망심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부양책 규모와 정책 기조를 확인한 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3분기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은 수출 주도주와 첨단제조(반도체/AI)다.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증가율과 가속화 측면에서 모두 우위인 품목은 IT하드웨어(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변압기, 자동차다. A주 2024F 매출 증가율과 모멘텀 상위 업종과 일치한다. 2차전지의 경우 캐즘 현상과 공급과잉으로 수출 증가율과 모멘텀 모두 열위다. 가구 등 내구재는 증가율 둔화에도 모멘텀 측면에서 우위다.

5월 말 3,440억위안(약 65조원) 규모 반도체 3기 펀드가 정식 출범했다. 1기는 파운드리, 2기는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했다. 3기는 1) 파운드리 12인치 Fab Capa 확대, 2) 국산화율이 저조한 소·부·장(노광장비 등 전공정), 3) AI용 GPU 개발에 집중 지원이 예상된다. 최대 수혜 기업은 전공정 장비업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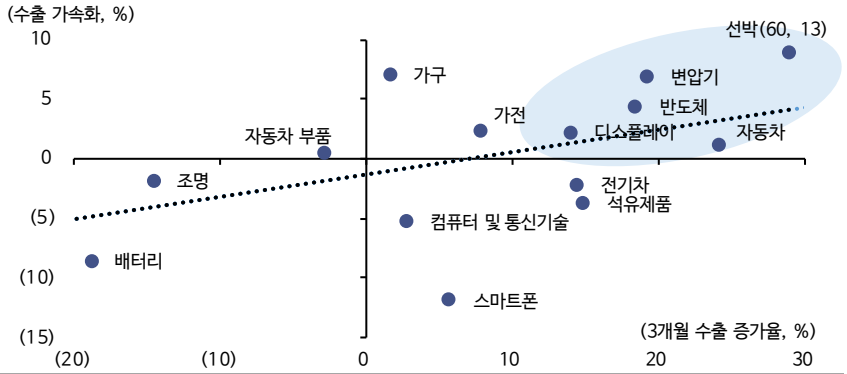
스타일 측면에서 TMT(Tech+Media+Telecom)의 상대 강세를 예상한다. TMT의 핵심 변수는 1) 정부 산업정책과 2) IT 업황이다. 반도체 3기 펀드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반도체/패널 가격 상승 등 업황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3중전회에서 첨단제조(신품질생산력) 정책 강화 기조 확인된다면 주도주 켜리는 더욱 뚜렷해질 공산이 크다. 구성 업종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

3분기 상해종합지수 밴드 2,800~3,300p (10~11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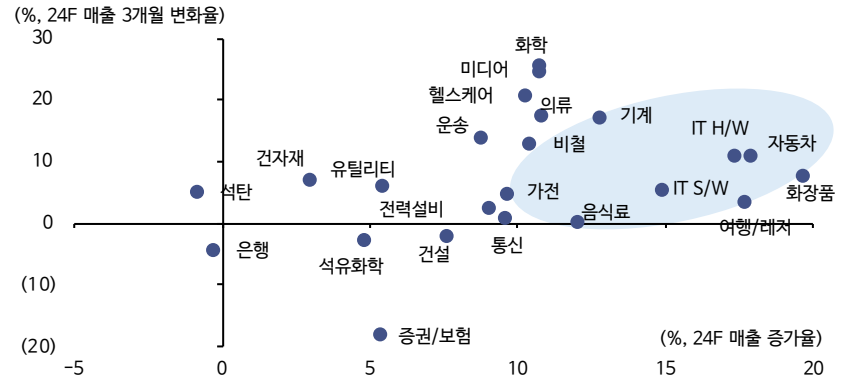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중국 15대 주요 수출품목 수출 증가율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A주 업종별 2024년 매출 증가율 및 최근 3개월 변화율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사: 신한증권).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하건형 연구위원 ✉ keonhyeong.ha@shinhan.com

김찬희 수석연구원 ✉ chee@shinhan.com

이진경 연구위원 ✉ jk2@shinhan.com



글로벌 경제 종합 동향 전망

경기 회복세 확산이 억제되는 경제 환경

6월 동향: 부문별 경기 차별화 재차 심화. 미국 등 선진국 견조한 고용 바탕으로 서비스 중심 내수 개선세 유지. 반면 고용 호조에에도 고금리 장기화 경계 속 재화 소비 및 투자 일제히 부진. 공급망 재구축과 AI 투자 관련 자본재 수요 공급망 재구축 이뤄지는 국가(미국, 인도, 중남미 등) 중심 양호. 재고 재축적 수요 약화에 따른 내구재 소비 부진 등으로 소비재와 중간재 등의 수요 상대적으로 부진

정책 모멘텀 미약. 미 연준 6월 FOMC 회의에서 선제적 인하 가능성 차단. ECB 금리 인하 시작했으나 연속 인하 가능성 제한. 중국 5월 부양책 시행 효과 관찰 구간 진입

7월 전망: 여름철 휴가 시즌 앞두고 대면 활동 비중 높은 서비스업 중심 수요 유입 이어져 경기 차별화 지속 무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 높아진 서비스 수요 확대에 여타 부문 수요 여력 미미.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 경기보다 물가 안정에 맞춰 정책 운용 예고. 고금리 장기화 경계가 재화 수요 억제 판단. 주요국 2분기 GDP 발표에서 내수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경제 우위 재확인 전망. 고금리, 고물가 부담 느끼는 가계 비중 확대돼 물가 점진적 둔화 흐름 유지 무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단기간 변화되기 어려운 구간에서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 기대

미국 견조한 내수에도 회복세 확산 제한	비미국 기대치에 못 미치는 회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5px;">서비스</div> <div style="font-size: 24px; color: red; margin: 0 1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999999;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5px;">B2B 재화</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조한 고용 • 여름철 연휴 시즌 도래 대면활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수요 유지 • B2C 수요 약화 (유럽, 중국 등 대부분 비미국 영향)
<div style="background-color: #FFC00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5px; text-align: center;"> B2C 재화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내구재 교체 주기 도래 vs. 고금리 부담, 소비심리 위축</p>	<div style="background-color: #999999;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5px; text-align: center;"> 경기 부양책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부양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채 발행, 부동산 수요 및 공급 정책 • 부동산 수급 불균형 고려시 • 부양책의 경기 부양 효과 시점 4분기 중 • 유로존 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인하 기대 선반영 • 더딘 물가 안정 속 연속적 인하 기대 차단 • 부동산 가격 회복 제한돼 부의 자산효과 제한

자료: 신한투자증권

6월 주요 이벤트

- ✓ **미국 FOMC 회의:** 금리 동결 결정 속 점도표 상 연내 2~3회 금리 인하에서 1~2회 인하로 축소 파울 의장 기자회견에서 5월 물가 긍정적 평가한 가운데 향후 지표에 따라 유연한 대응 강조
- ✓ **미국 5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오름폭 축소. 생산자물가 둔화와 함께 연준 인하 기대 확대
- ✓ **유럽의회 선거:** 시장 예상대로 극우정당 약진.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확대

7월 전체 이벤트 일정



일	이벤트	포인트
월중	한국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하반기 경제 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 확인 필요. 성장률과 물가 전망 변화에 주목
	중국 정치국 회의	중국 지도부 경제정책 방향 제시, 중국 개혁 정책 평가 예정. 회의에서의 중국 경제 현황 평가에 주목. 경기 부양 위한 부양책 패키지 제시될 가능성
	연준 반기 의회 보고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의회 보고 예정. 하반기 미국 물가에 대한 평가와 통화정책 계획에 주목. 7월까지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 정책 방향성 변화할 전망
1일	한국 6월 수출입동향	지난 5월 수출입동향에서 수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 G2 중심 수요 지속된 가운데 IT 중심 호조. 당분간 미국 AI 투자가 주도하는 수출 성장 연장 전망
3일	6월 FOMC 의사록 공개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 향후 지표에 따라 유연한 대응 강조. 의사록에서 구체적인 6월 회의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 확인 필요
5일	미국 6월 고용보고서	지난 5월 비농가취업자 전월대비 27.2만명 늘어 컨센서스 상회. 정부 재정과 이민자에 힘입은 양적 고용 증가에도 공급 개선 이어져 하반기 인하 전망 유지
11일	한국 금통위 회의	지난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 2024년 성장률 전망 2.5%로 상향됐으나 물가 전망 2.6% 유지. 물가 불확실성 여전해 향후 1회 금리 인하 예상
12일	중국 6월 수출입동향	지난 5월 수출 아세안향 수출 중심 개선. 가전, 자동차, 가구 중심 내구재 수출 호조. 신흥국 중심 영향력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까지 중국 수출 우상향 예상
15일	중국 2분기 GDP와 6월 주요 동행지표	지난 5월 동행지표에서 재화소비 반등에도 투자와 생산 미진한 흐름. 부양책 효과 가시화 되겠지만 지표 반영까지 시차 상존. 당분간 부진한 흐름 지속 예상
16일 ~17일	미국 6월 주요 동행지표	지난 5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1% 증가, 전월치 하향 조정되며 완만한 소비 둔화 시사. 고금리 장기화에 소비 둔화 이어지겠지만 산업생산 호조 긍정적
18일	ECB 통화정책회의	6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 ECB 위원들 향후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 입장 견지해 통화 완화 속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
25일	한국 2분기 GDP	1분기 GDP 전기대비 1.3% 성장해 컨센서스 상회. 다만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영향 커 성장 지속성 의심. 순수출 기여도 개선에도 내수 완만한 둔화 예상
	미국 2분기 GDP	1분기 GDP 전기대비연율 1.3% 성장. 민간소비 둔화에도 고른 투자 개선에 성장 지속성 유효. 부문별 고른 경기 개선 속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 지속 기대
30일	유로존 2분기 GDP	1분기 GDP 전기대비 0.3% 성장. 순수출 성장 기여도 개선에도 민간소비 미진한 흐름. 대외 수요 회복에도 중국 개선 시사 상존해 당분간 부진 지속 예상
30일 ~31일	BOJ 통화정책회의	지난 6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 4월 결정에서의 변화 부재.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은 7월 발표 예정. 시장 기대대로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펼쳐질 전망
	미국 FOMC 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예상. 연준의 인플레이션 및 경기 상황 평가 방향에 주목. 뚜렷한 지표 개선 나타나기 전까지 정책 관련 신중한 입장 견지할 가능성 우세
31일	한국 6월 산업활동동향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 반등에도 소매판매 감소하며 부진한 내수 환경 시사. 도해지스 두하 NFD는 두 내수 부진 이어질 전망

자료: 신한투자증권



국가별 동향 및 전망



미국: 고금리 경계 속 제한된 경기 회복세 확산

동향: 5월 비농가취업자 27만명 급증하며 재차 장기 평균 상회. ISM 비제조업지수 8개월래 최고치 기록하는 등 서비스 중심 양호한 내수 유지. 그럼에도 선제적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속 재화 수요 확산 제한. 미시건 소비심리지수 악화 속 소매판매 감소. 5월 ISM 제조업지수 기준치(50) 하회 흐름 연장

부진한 수요에 공급 환경 개선 이어지며 5월 물가지표 안정.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과 핵심 모두 안정폭 확대. 다만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선제적 인하 기대 차단 위해 물가 안정 초점 둔 정책 운용 기조 유지. 금년 물가 전망치 상향된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횟수 기준 2~3회에서 1~2회로 축소

전망: 서비스업 중심의 양호한 내수 환경 유지 무게. 여름철 연휴 시즌 앞두고 대면 서비스 수요 유입 대비한 고용 확대 흐름 이어질 전망. 대신 고금리 장기화 경계 및 서비스에 집중된 수요 확대는 재화 수요 여력 제한돼 재화생산업 경기 회복 정체 예상

경기 전망 악화에 따른 선제적 수요 약화 경제 부문의 불균형 완화 유도 판단. 재화 부문 물가 안정폭 확대에 이어 5월에 시작된 서비스 부문 물가 안정도 6월에 이어질 전망. 그럼에도 연준은 선제적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물가 재상승 리스크 방지 위해 매파적 입장 견지 판단



국내: 대내외 경기 차별화 지속

동향: 대내외 경기 차별화 지속. 5월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장기평균(100) 하회한 가운데 4월 소매판매 감소. 5월 취업자 전년대비 8만명 증가에 그치며 고용 둔화세 지속.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된 까닭. 수출은 5월 중 전년대비 11.7% 늘며 2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 이어졌으나 미국과 IT에 편중된 수출 확대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 올라 안정 지속. 농축수산물 가격 반락 속 수요와 연동된 서비스 물가 안정에 핵심 물가 상승률 2%로 둔화. 한은 총재 물가 위험 정점 통과 인식 속 금리 인하 검토 시사

전망: 미국 내수 둔화 전까지 공급망 재편, AI 투자 등에 수출 성장세 지속 무게. 다만 고금리 부담에 소비재 및 중간재, 비미국 수요 회복 제한돼 품목별 수출 차별화 이어질 전망. 수출의 내수 진작 효과 역시 제한되나 여름철 휴가 시즌 진입 속에 서비스 수요 집중돼 산업별 차별화 심화 무게

내수 부진 우려에 따른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예상. 그럼에도 7월 금통위에서 명확한 기준금리 인하 신호 부재 판단. 견조한 수출 경기 속에 이른 금리 인하가 물가 상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내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역시 금리 인하 제약



유럽: 금리 인하 이후 오히려 둔화된 경기 모멘텀

동향: 서비스업 중심 경기 회복 지속. 유로존 S&P Global 종합 PMI 5월 중 52.3 기록하며 12개월래 최고치. 제조업 부진 완화 속 견조한 서비스 수요 경기 개선 견인.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가파른 물가 안정 속 ECB 정책위원의 6월 기준금리 인하 시사에 형성된 통화완화 기대가 내수 심리 회복에 긍정적

ECB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예상대로 25bp 인하. 대신 기존 가이드라인 제시대로 하반기 APP에 이어 PEPP 자산재투자 축소 통한 양적긴축(QT) 확대 예정대로 진행. 향후 물가 안정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연속적 인하보다 단계적 인하 시사한 가운데 높은 임금으로 소비자물가 5월 중 반등

전망: 경기 회복 모멘텀 3분기 중 약화 우려. 1) 유럽 의회 선거 이후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 2) 시장 예상보다 더딘 금리 인하가 내수 반등 제약.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 약진 속 프랑스 조기 총선 실시. 여론조사 상 집권 여당 패배 예상돼 정책 연속성 훼손 우려 속 내수 위축 전망

향후 물가 안정 속도 둔화 속 절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경제 활동 추가 회복 제한 판단. 가계자산 7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반등이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서비스, 필수재화 중심의 소비 회복의 확산 제한 경계. 미국 등 글로벌 재화 수요의 낙수효과 약화도 경기 모멘텀 둔화 요인



일본: 엔저에 따른 이득보다 부담 구간 진입

동향: 엔화 약세로 수출과 내수 간 차별화 발생. 수출은 4월 중 전년대비 8.3% 늘며 증가세 유지. 반면 소매판매는 들쭉날쭉한 흐름 이어진 가운데 투자 부진으로 산업생산 감소 전환

5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9% 올라 상승폭 확대. 서비스 물가 안정에도 엔화 약세에 따른 재화 물가 상승 영향. BOJ 가파른 엔저에 따른 정책 대응 시작. 과거에 비해 환율 변동 물가에 영향 미치기 용이해졌으며 급속한 일방적 엔저는 일본 경제에 부정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장기국채 매입 감축 결정. 매입 감축 규모와 속도는 7월 회의에서 향후 1~2년 계획 공표 발표

전망: 전기료 및 가스 보조금 금년 6월로 종료. 에너지 지출 부담 확대되나 정액 감세(1인당 4만엔) 실시로 소비 위축 제한적 판단. 통화정책 정상화 충격에 따른 심리 위축이 경제활동 회복 제약하나 하반기로 가면서 춘투 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5.3%)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경기 완만한 개선 기대

미약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에도 에너지 보조금 중단,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제한 판단. 7월말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 구체화 속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상 가능성 시사 예상. 물가에 비해 미약한 경기가 인상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국: 부양책 효과 시차 속 기대치 밀둔 회복

동향: 중국 부양책 시행에도 경기 회복세 미약, 소비 이구환신 정책 등에 통신장비 등을 중심으로 개선폭 확대. 투자가 부동산, 인프라 등 구경제 중심으로 부진해 전체 경제활동 회복 제약. 수출 증가폭 확대에도 내수 회복 제한 속 산업생산 증가폭 5월 중 축소.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에서도 대외 수요와 내수 간 엇갈림 확인. 수출 중심 대형기업 PMI 견조한 반면 내수 영향력 높은 중소형 PMI 위축

시장 기대치를 밀둔 경기 회복에도 추가 부양 조치 부재. 인민은행은 내외 금리 차 역전폭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경계. 정부는 5월 부양책 시행에 나선 만큼 정책 효과 가늠하는 관망 입장 유지

전망: 제조업의 순환적인 반등이 경기 회복을 이끄는 가운데 내수 반등 시점 관심. 제조업은 대외수요 회복과 정책 지원 등 뒷받침. 투자 회복 여부가 내수 회복의 열쇠. 정부는 1조위안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를 이번 달부터 발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양 위한 공급 및 수요 대책 동반.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3천억위안), LTV 확대 및 구매제한 조치 완화해 수요 진작. 3분기 저점 통과 기대. 통화정책 온건한 완화 기조 이어갈 전망. 자본유출 압력 잔존한 까닭. 대신 개인의 주택 공적자금 대출금리 25bp 인하. 2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금리 하한 폐지해 주택 경기 부양 노력

인도: 모디 3연임, 미국과 협력 통한 성장 도모

동향: 4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5% 증가해 소폭 개선. 5월 S&P Global 제조업 PMI 57.5로 전월(58.8)대비 소폭 하락. 서비스업 역시 60.2로 전월(60.8)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역사적 고점 부근 유지. 5월 수출 10.5% 늘며 회복세,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대미국 수출 중심 호조 지속

6월 RBI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5월 핵심 물가(+3.1% YoY) 둔화세 유지했으나 식품 물가(+8.6%) 불안정에 전체 물가(+4.7%) 더딘 안정세. 다만 25bp 인하 의견 4월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모디 총리 3연임 성공했으나 인도국민당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여권 연합은 힘겨운 과반(293/534석)

전망: 모디 총리 이끄는 인도국민당 과거에 비해 의석수 축소됐으나 여권 연합 과반 유지해 정책 추진력 훼손 제한적일 전망. 7월 중순 신정부 예산안 발표 통해 모디 3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 예상. 모디 3기 첫 공식 업무로 농민 지원 정책 발표, 총선 이후 민심 고려해 경제 성장과 함께 재분배 강조

지정학 긴장 속 미국-인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모디 총리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인도의 대미국 수출 비중 또한 전체 대비 18%로 확대 지속. 산업생산 내 인프라 및 건설재 생산 증가율(+7.9% YoY)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성장 동력 추가 예상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외환시장: 지연되는 원/달러 하락

동향: 달러화지수 6월 들어 100pt대 중반에서 완만한 상승. 매파적인 6월 FOMC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기대가 유지되며 연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기대 우세.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의 득세로 유럽 정치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상대적으로 달러화 강세 우위

원/달러 환율 대내외 요인 맞물리며 1,400원 근접. 예상보다 더딘 비미국 수요 회복에 수출 확장 기대 약화. 유럽 정치 불확실성 부상 및 인민은행 추가 완화 수단 도입 가능성 등에 비달러자산 매도 압력 동조화. 1분기 대비 속도는 둔화되었으나 미국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 투자 확대 지속

전망: 달러화 미국경제 상대 우위 하 완만한 강세 이어질 전망. 미국경제의 완만한 둔화 기조는 유효하나 비미국 경제 불확실성 부각되는 국면. 7월 초 프랑스 조기 총선이 마무리되기까지 유럽 지역의 정치 불확실성 잔존하며 이에 따른 경기 심리 위축 불가피. 중국 역시 부양책 효과 가시화까지 시차

원/달러 역시 1,300원대 중후반에서 하방경직적 흐름 예상. 비미국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미국 일변도의 수출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자리한 가운데 내수 경기의 가늠자가 되는 고용 부진 심화. 이와 맞물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 주춤한 반면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주식 투자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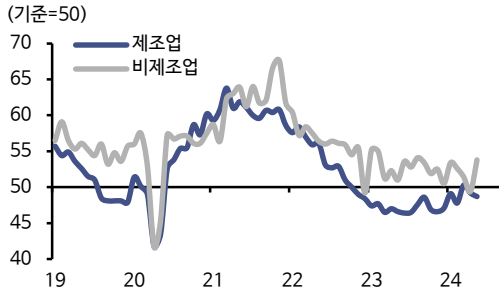


상품시장: 차별적 경기 회복 반영

동향: 원자재별 수요 환경에 따라 가격 차별화 지속. (WTI) OPEC+ 정례회의에서 자발적 감산 물량 축소로 월초 70달러 초중반까지 하락. 그럼에도 선진국 고용 양호한 가운데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 부상하며 유가 80달러 초반 반등. (금) 선제적 인하 기대 훼손 속 강 달러 압력 부각되며 금 가격 온스당 2,300달러 중반으로 후퇴. (산업금속) 미국과 IT 중심의 경기 회복세 확산이 제한되면서 수요 전망 후퇴. 5월 중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지속돼 주요 산업금속 가격 속락. (농산물) 강 달러 압력 속 미국 우호적 파종 날씨 예보 등에 곡물재고 전망 상향돼 주요 곡물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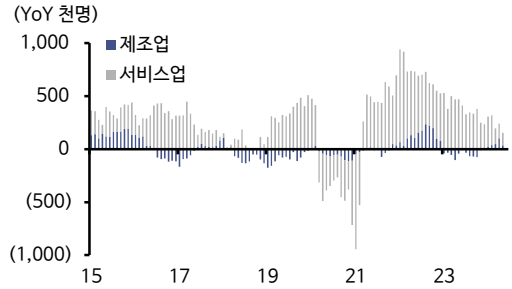
전망: 여름 휴가 시즌 도래 속 대면활동 중심 소비 확대로 원자재 가격 차별화 지속 무계. (WTI) 미국 견조한 고용 바탕으로 휘발유 수요 견조. 중국 내수 부양책 시행에 서비스 중심 소비 확대돼 유가 완만한 반등 무계. (금) 미국 중심 경기 회복에 강 달러 압력 잔존해 금 가격 반등 제한적. 다만 유럽 정치 리스크 등 불확실성 헤지 수요 유입에 금 가격 바닥 다지기 전망. (산업금속) 기대치를 밑돈 재화생 산업 회복에 산업금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하나 회복 방향성 유효해 가격 추가 조정은 제한적. (농산물) 미국 중심으로 온화한 날씨 이어지고 있으나 가격 상승분 대부분 반납해 하방 경직적 흐름 전망

미국: ISM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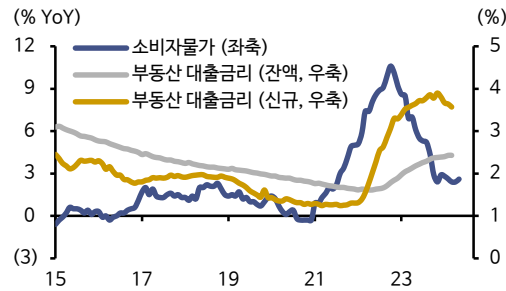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신한투자증권

한국: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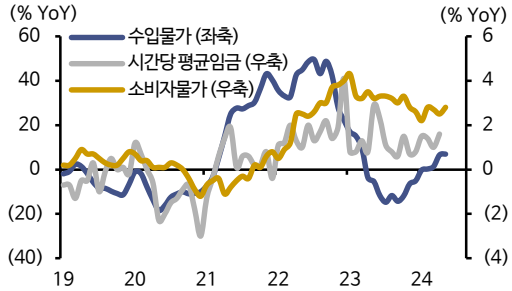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유럽: 소비자물가와 가계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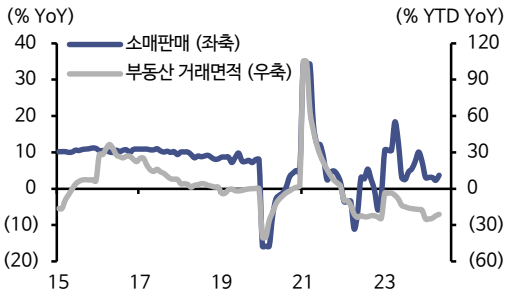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일본: 수입물가와 시간당평균임금,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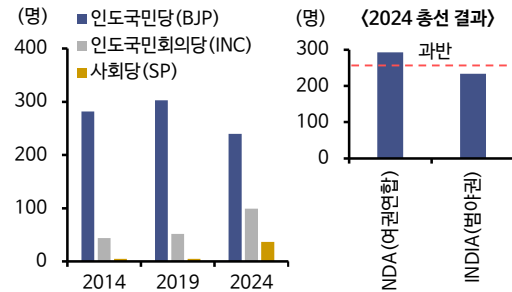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중국: 소매판매와 부동산 거래면적



자료: CEIC, 신한투자증권

인도: 주요 정당 총선 의석 수 변화



자료: 인도선거관리위원회,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하건형, 김찬희, 이진경).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사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3Q 전망: Data Dependent



Fixed Income Strategist

안재균

☎ (02) 3772-1298

✉ jk.ahn@shinhan.com

3.1%대 국고 3년, 3.2%대 국고 10년은 과도한 하락 영역

6월에 다시 국고 3년은 3.2%, 국고 10년은 3.3%를 하회했다. 국고 3년 및 10년 이 연중 고점을 본 시기는 4월말이었다. 한달 반만에 연중 저점까지 빠르게 내려간 것은 연초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의 재강화였다.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재정집행속도 때문이다. 하반기 정부 지출을 늘리기 어렵기에 내수 둔화 시 통화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압박에도 이유가 있다.

이미 금통위는 2월부터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5% 가능성 열기 의견의 근거는 향후 내수 부진 시 선제적 대응이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우리는 3분기 후반 헤드라인 물가가 2.2% 내외까지 하락하는 경로를 예상한다. 이를 고려하면 5월 기준 0.84%인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헤드라인 물가)는 1%를 상회하게 된다. 1% 초과 실질기준금리는 소비 중심으로 내수에 타격을 주어 전체 성장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중립적인 금통위는 향후 물가와 내수 중심 성장세를 확인하며 완화 시기 전환을 저울질 중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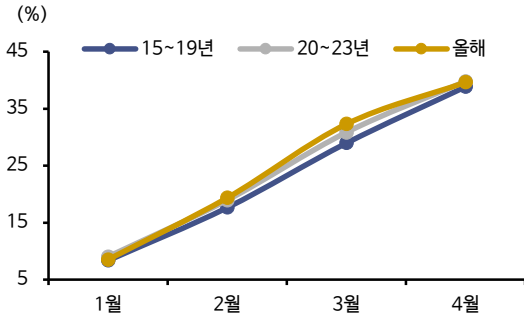
향후 적절한 시기의 통화완화 전환이 유력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의 기대처럼 연 2회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여전히 과도해 보인다. 한국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년 이상 3%대를 상회하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과거보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 시 물가 충격은 1.5배에 달한다. 선부른 금리 인하는 물가 재반등을 이끌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 부동산 매수 심리 반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시장 기대와 달리 7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포함 금리 인하 힌트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국고채 금리 레벨은 무리한 기대가 반영된 과매수 영역이다.

연내 금리 인하 힌트는 8월 금통위, 7말8초가 저가 매수 진입 시기

한미 국채 금리 민감도가 올해 다시 확대됐다. 여전히 미국 국채 10년이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 정책 경로가 중요하다. 미국도 과거 대비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 상황이다. 2~3회 인하를 예상한 시장 기대에 연준이 부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7월 FOMC까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되돌림을 경계해야 한다. 주요 국고채 금리 역시 7월말까지 추가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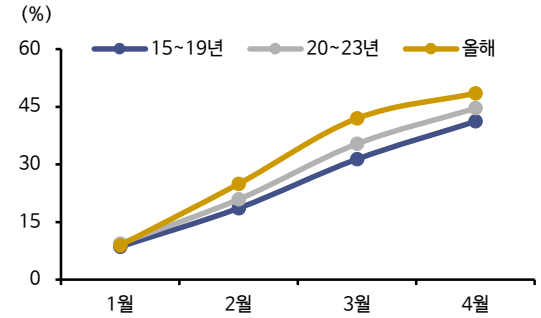
지금보다 내수가 둔화되고, 물가가 2%에 근접하는 경로가 확인될 8월 금통위에서 연내 금리 인하 힌트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7월 FOMC까지 상승세를 보일 금리는 8월 이후 연중 저점을 낮추는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3분기 중 국고채 저가 매수 진입 시점은 7월 FOMC 전후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총예산 집행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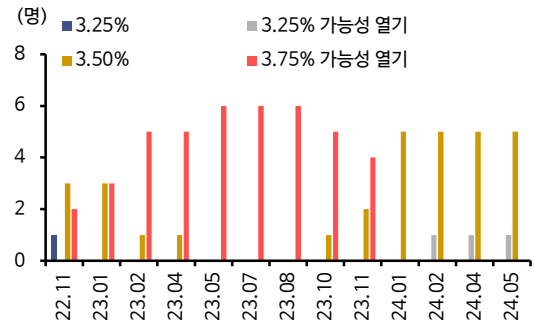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신한투자증권

팬데믹보다 빠른 관리대상사업 지출 집행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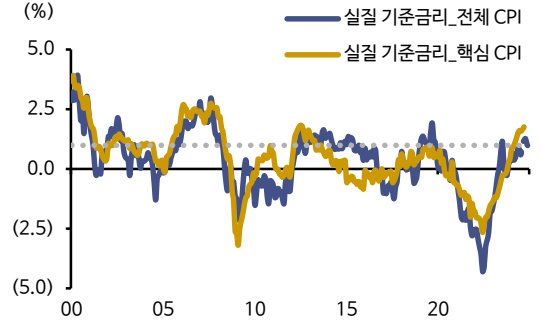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신한투자증권

중립적인 금통위, 향후 통화완화 전환 시점 저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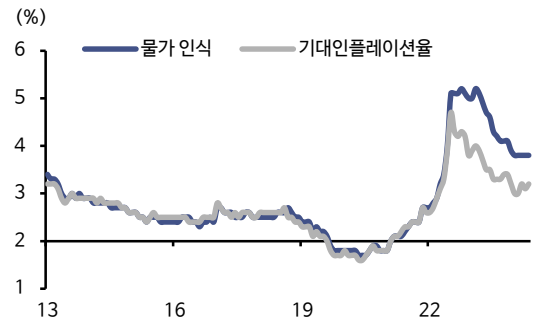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8월부터 한국 실질기준금리 1%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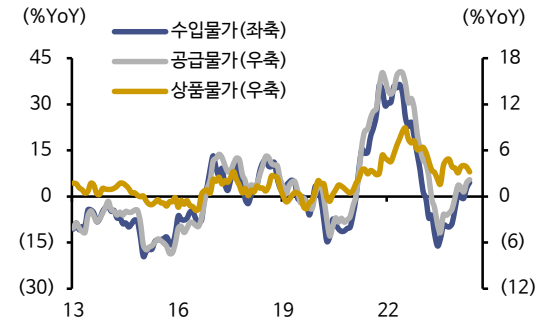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높은 물가 인식,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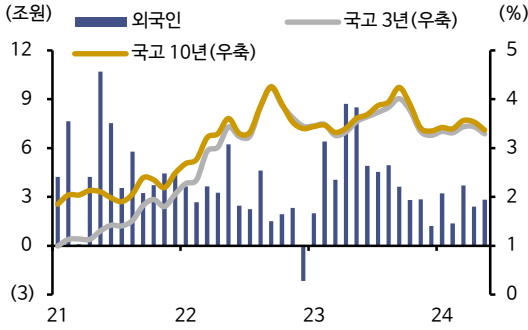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수입 및 공급물가 상승이 높은 물가 인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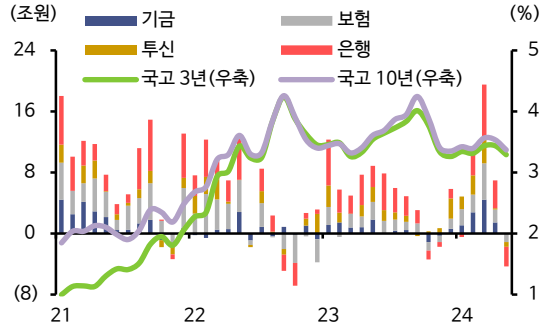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2Q 외국인 국고채 현물 순매수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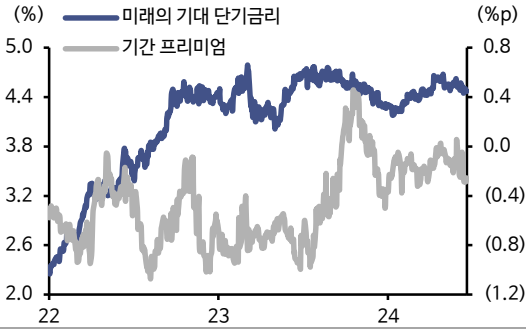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저가 매수 전략에 집중하는 기관, 6월 순매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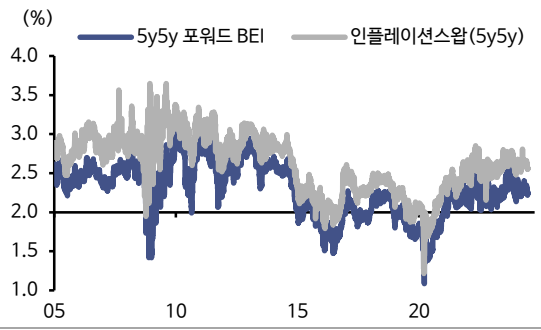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미국 국채 10년 금리 상승 주 요인은 통화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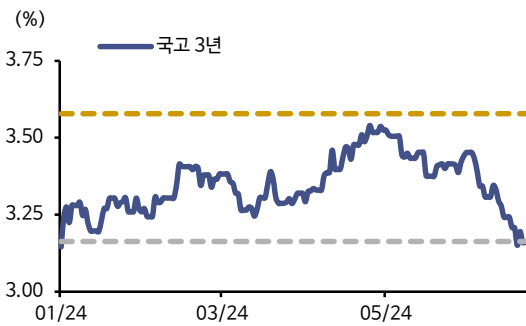
자료: 뉴욕 연은, 신한투자증권

미국도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섀부른 금리 인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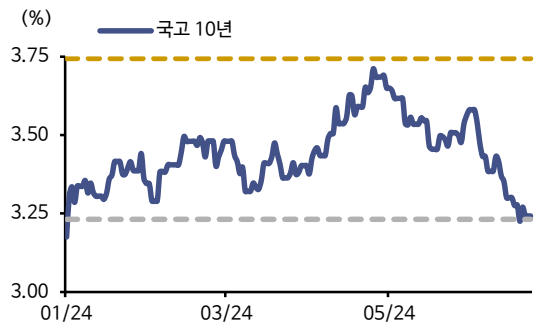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8월 금통위 전까지 국고 3년 3.2~3.4% 흐름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국고 3/10년 10bp 상회해야 저가 매력 형성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안재균).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HL 만도 (204320)

몰려오는 수주

2024년 6월 26일

✓ 투자판단	매수 (유지)	✓ 목표주가	55,000 원 (상향)
✓ 상승여력	23.0%	✓ 현재주가 (6월 25일)	44,700 원

신한생각 완성차 중심에 부품사를 추가하는 전략이라면

완성차가 고마진+주주환원의 연결고리로 수익률을 담보하고 있다면 부품사는 매출 성장+밸류에이션이 핵심. 동사는 샤시 제품의 우위를 바탕으로 23년 신규 수주 서프라이즈 기록해 매출 성장의 발판을 확보. 24년도 신규 수주 목표치를 상회할 전망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낮추고, 인도/중국에서 확보한 성장성

전체 매출에서 인도 법인의 비중은 9~10% 내외. 2023년 연결 매출 8.4조 원 중 인도 7,670억원 기록. 1Q24에도 매출 2.1조원(+6% YoY) 중 인도는 2,081억원(+14% YoY)으로 성장을 견인 중. 수익성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해 전체 영업이익에서 인도 비중은 20~30% 내외로 추정. 현대/기아 (비중 70%대) 및 로컬 OEM(비중 22%) 중심으로 양호한 고객군을 구성했고 EPS, EPB 등 고마진 제품 선점해 전장 제품 비중도 60%에 육박.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시 Top tier 샤시 부품사로 위치할 전망

인도/중국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2Q24 매출 2.2조원(+4% YoY, +3% QoQ), 영업이익 895억원(+16% YoY, +18% QoQ) 전망. 특정 고객사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전동화/자율주행에 집중된 차세대 샤시 제품 전개로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

Valuation

1Q24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해 12MF PER 6배를 저점으로 최근 7.7배까지 상승. 2014년 이후 12MF PER 평균값은 10배로 업사이드 존재. EV 최대 고객사의 물량 둔화 우려를 신규 EV 고객사 확보로 상쇄한 점 감안해 목표주가 55,000원으로 상향(+23%)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2	7,516.2	248.1	98.3	19.3	4.8	0.9	5.9	1.2
2023	8,393.1	279.3	135.6	13.6	6.2	0.8	5.7	1.5
2024F	8,802.8	344.2	292.0	7.2	12.3	0.8	4.4	1.3
2025F	9,782.7	385.5	252.3	8.3	9.6	0.8	3.9	1.3
2026F	10,353.3	463.5	315.2	6.7	11.0	0.7	3.3	1.3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자동차부품/타이어]

정용진 연구위원
✉ yjjung86@shinhan.com

최민기 연구원
✉ minki.choi@shinhan.com

Revision

실적추정치	하향
Valuation	상향

시가총액	2,099.0십억원
발행주식수(유동비율)	47.0백만주(68.6%)
52주 최고가/최저가	53,900 원/31,650 원
일평균 거래액 (60일)	21,518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27.3%

주요주주 (%)

에이치엘홀딩스 외 4인	30.3
국민연금공단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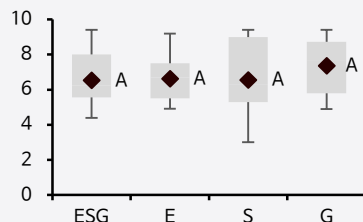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18.3	35.5	(12.4)	11.5
상대	14.6	33.7	(18.8)	7.3

주가



ESG 컨센서스

(점수 및 등급)



목표주가 산정 Table

(원, 배)	2024F	2025F	2026F 비교
EPS	6,219	5,373	6,712
목표 PER	8.8	10.2	8.2
목표주가	55,000	55,000	55,000
현재 PER	7.2	8.3	6.7
현재주가	44,700	44,700	44,700
상승여력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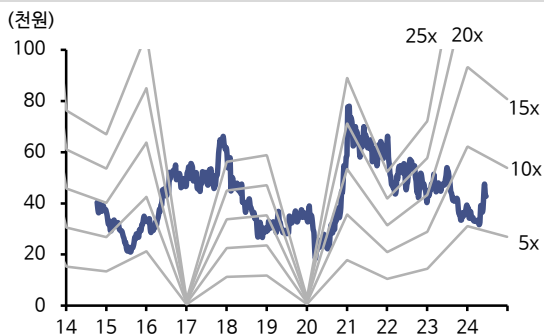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글로벌 경쟁사 밸류에이션 비교

회사명	시가총액 (십억원, 배, %)	2024F				2025F			
		PER	PBR	EV/EBITDA	ROE	PER	PBR	EV/EBITDA	ROE
현대모비스	23,295	6.4	0.5	4.4	8.6	5.9	0.5	3.9	8.6
한온시스템	2,637	16.0	1.1	6.7	7.0	10.0	1.0	5.9	10.8
현대위아	1,599	8.3	0.5	3.9	5.6	7.3	0.4	3.7	6.1
HL만도	2,099	8.1	0.9	5.5	11.4	8.3	0.8	5.0	9.9
S&T모티브	727	7.6	0.7	2.1	9.8	7.3	0.7	2.0	9.4
콘티넨탈 (독일)	16,297	7.2	0.8	3.8	10.7	5.5	0.7	3.3	12.7
마그나 (캐나다)	17,012	7.5	1.0	4.4	13.0	6.2	0.9	4.0	14.4
도요타 인더 (일본)	38,722	18.1	1.0	15.4	5.8	15.2	0.8	13.2	5.0
아이신 (일본)	13,548	14.6	0.8	4.9	5.5	9.4	0.7	4.1	7.3
보그워너 (미국)	10,643	8.3	1.2	5.4	15.0	7.3	1.1	5.0	15.1
니텍 (일본)	37,905	29.1	2.8	15.5	10.1	22.7	2.5	12.5	11.2
덴소 (일본)	68,219	19.5	1.6	9.6	8.0	13.4	1.3	7.6	10.2
존슨콘 (미국)	64,411	19.2	2.7	13.2	13.2	16.8	2.5	12.2	15.4
엡티브 (미국)	28,781	12.5	1.8	8.2	13.3	9.9	1.5	7.3	15.5
코이트 (일본)	5,871	14.6	1.1	4.0	7.4	15.2	1.0	4.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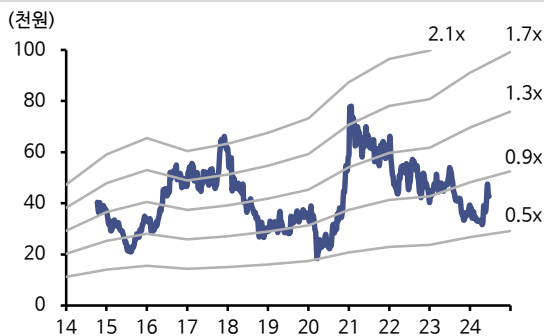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12개월 선행 PER 밴드 차트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12개월 선행 PBR 밴드 차트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2Q24 Preview

(십억원, %)	2Q24F	2Q23	YoY	1Q24	QoQ	신한(기준)	컨센서스
매출액	2,179	2,087	4.4	2,107	3.4	2,159	2,184
영업이익	89	77	16.2	76	18.3	93	88
세전이익	68	69	(1.8)	215	(68.3)	78	79
순이익	51	48	6.5	140	(63.5)	58	43
영업이익률	4.1	3.7		3.6		4.3	4.0
순이익률	2.3	2.3		6.6		2.7	2.0

자료: 회사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추정

주: 순이익은 지배주주 기준

수익 예상 변경

(십억원, %)	변경전			변경후			변경률		
	2024F	2025F	2026F	2024F	2025F	2026F	2024F	2025F	2026F
매출액	8,649	9,450	10,002	8,803	9,783	10,353	1.8	3.5	3.5
영업이익	362	396	479	344	385	464	(4.9)	(2.8)	(3.2)
세전이익	454	337	423	419	338	422	(7.7)	0.2	(0.2)
순이익	318	252	316	292	252	315	(8.2)	0.2	(0.2)
영업이익률	4.2	4.2	4.8	3.9	3.9	4.5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P	2Q24F	3Q24F	4Q24F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1,997	2,087	2,119	2,190	2,107	2,179	2,172	2,344	8,393	8,803	9,783	10,353
한국	756	765	752	783	738	770	855	841	3,057	3,204	3,324	3,505
중국	416	480	511	555	446	489	516	617	1,963	2,069	2,239	2,395
미국	400	374	367	372	504	358	346	390	1,513	1,598	1,919	2,001
인도	185	184	204	195	211	254	214	201	767	881	984	1,055
매출액 증감률	18.3	24.3	7.7	0.4	5.5	4.4	2.5	7.0	11.7	4.9	11.1	5.8
(% YoY) 한국	15.7	11.4	15.1	(1.7)	(2.4)	0.6	13.7	7.4	9.5	4.8	3.7	5.4
중국	(1.7)	47.1	0.6	0.8	7.2	1.8	1.0	11.1	8.5	5.4	8.2	7.0
미국	40.8	21.2	(1.5)	(3.3)	26.0	(4.2)	(5.8)	4.9	12.1	5.7	20.1	4.3
인도	14.2	3.8	0.1	(3.6)	14.2	38.7	5.2	2.9	3.0	14.8	11.8	7.2
영업이익	70	77	82	51	76	89	82	97	279	344	385	464
세전이익	71	69	44	42	215	68	62	74	226	419	338	422
순이익	39	48	13	36	140	51	46	55	136	292	252	315
영업이익률 (%)	3.5	3.7	3.8	2.3	3.6	4.1	3.8	4.2	3.3	3.9	3.9	4.5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용진, 최민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넥스틴 (348210)

2H24 신규 장비 가시화

2024년 6월 26일

✓ 투자판단	매수 (유지)	✓ 목표주가	87,000 원 (유지)
✓ 상승여력	29.5%	✓ 현재주가 (6월 25일)	67,200 원

[반도체/장비]

남궁현 선임연구원
✉ hyon@shinhan.com

신한생각 2H24 신규 장비 가시화 → 2025년 실적 성장

2H24 신규 후공정 장비 양산 쉐 테스트 완료 예정. 2025년부터 1) 신규 장비 공급 본격화, 2) 국내 고객사 수주 확대, 3) 중국 고객사의 공격적인 Capa 증설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신규 장비(Crocky) 행보에 집중

2024년 실적은 매출액 1,064억원(+21% YoY), 영업이익 491억원(+36% YoY)으로 전망. 2022년 이후 국내 신규 Capa 증설은 부진했으며 국내 매출이 크게 감소. 반도체 하락 Cycle에 해외 고객사 중심(중국 매출 비중 23년 62% → 24년 85%)으로 실적을 방어하며 데모 장비 공급 중

24년 7월 신규 장비(Crocky)에 대한 데모 테스트 검증이 시작될 예정. 4Q24 양산 쉐 테스트 완료 후 2025년부터 양산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 Crocky는 HBM 공정 중에 사용되는 후공정 검사 장비로, 기존 장비(AEGIS)와 같이 이물질을 검출하는 Inspection 및 다양한 Alignment 검사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 경쟁사(Camtek, Onto) 대비 Defect 검출 능력이 뛰어나 기술적 우위 보유. 또한 2023년 공급한 데모장비 관련해서 2H24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포트폴리오 다각화 예상

Valuation

투자여건 '매수', 목표주가 87,000원으로 유지. 실적추정치는 하향(24년 기준 1,426억원 → 1,064억원)했으나 반도체 신규 Capa 증설 시점 및 신규 장비 가시화에 따라 Valuation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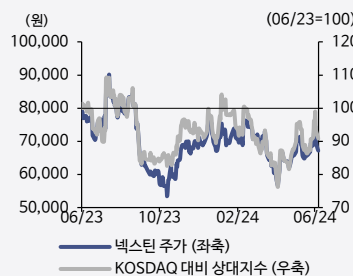
Revision

실적추정치	하향
Valuation	상향

시가총액	696.0 십억원
발행주식수(유동비율)	10.4 백만주 (68.2%)
52주 최고가/최저가	90,200 원/53,400 원
일평균 거래액 (60일)	8,254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5.3%
주요주주 (%)	
APS홀딩스 외 14인	30.1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4.4)	(3.7)	(13.3)	(6.7)
상대	(4.7)	4.5	(9.9)	(2.6)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2	114.9	56.5	43.4	11.3	52.5	5.0	7.5	1.0
2023	87.9	36.2	30.9	22.7	27.3	5.6	17.8	0.7
2024F	106.4	49.1	40.3	17.3	27.9	4.3	11.2	0.7
2025F	148.1	70.4	56.6	12.5	30.1	3.3	7.7	0.7
2026F	154.8	74.3	59.2	11.9	24.6	2.6	6.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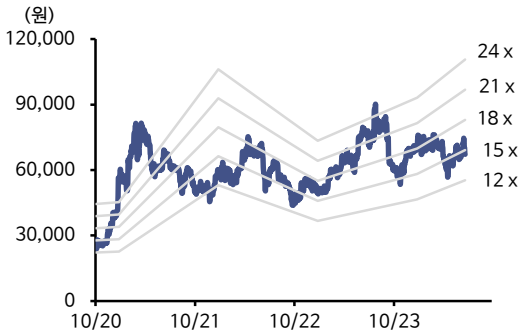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넥스틴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F	3Q24F	4Q24F	2023	2024F	2025F
매출	18.5	36.0	14.4	19.0	34.2	11.6	25.7	34.9	87.9	106.4	148.1
QoQ	(10.5)	94.4	(60.0)	31.6	80.3	(66.0)	120.9	36.1			
YoY	13.9	1.2	(66.0)	(8.4)	84.5	(67.7)	78.1	84.3	(23.5)	21.0	39.2
국내 매출	4.0	3.7	4.2	3.0	0.6	3.3	4.3	18.6	14.9	26.8	49.3
해외 매출	14.5	32.4	10.2	16.0	33.5	8.4	21.4	16.3	73.0	79.6	98.8
영업이익	8.4	16.6	5.3	5.9	18.9	3.8	12.0	14.4	36.2	49.1	70.4
QoQ	5.4	98.7	(68.3)	12.4	219.9	(80.0)	218.1	19.6			
YoY	28.1	(10.5)	(77.6)	(25.5)	126.2	(77.3)	128.0	142.9	(36.0)	35.7	43.4
영업이익률	45.1	46.1	36.5	31.2	55.4	32.5	46.8	41.1	41.1	46.1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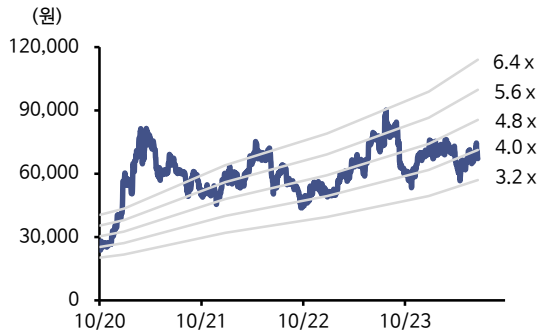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넥스틴 12MF PER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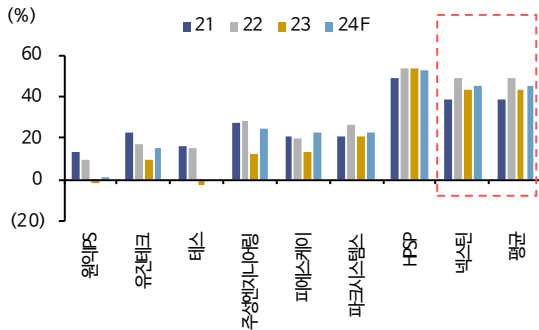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넥스틴 12MF PBR 차트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주요 반도체 장비사 OPM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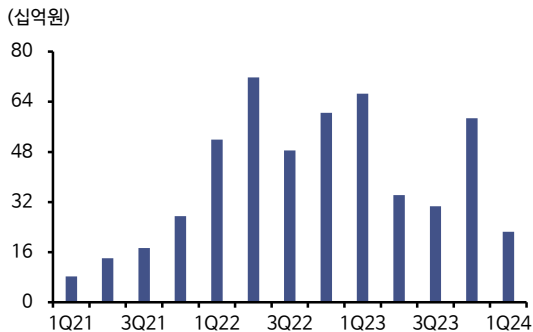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추정

수익성 높은 반도체 장비사 주가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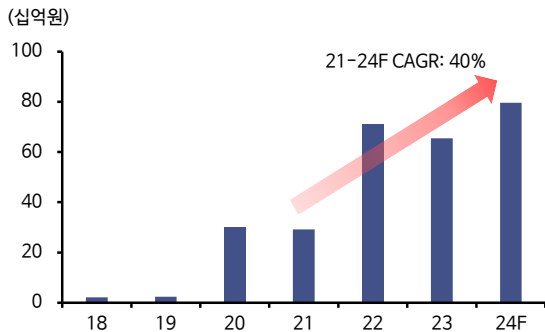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넥스틴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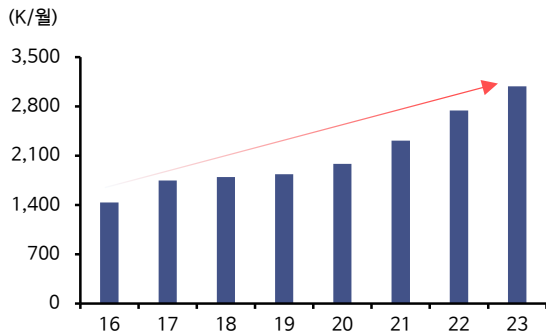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넥스틴 수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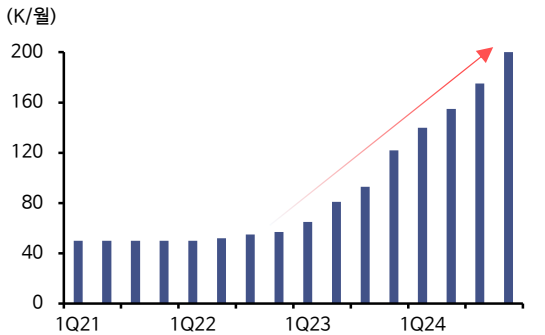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SMIC Cap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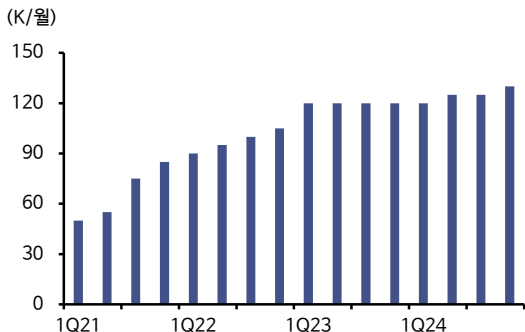
자료: SMIC, 신한투자증권

CXMT Capa 추이 및 전망



자료: DRAMeXchange, 신한투자증권

YMTC Capa 추이 및 전망



자료: DRAMeXchange, 신한투자증권

2025년 YMTC Capa 전망치 변화



자료: DRAMeXchange,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남궁현)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에어버스 (AIR.PA)

예상치 못한 가이던스 하향

2024년 6월 25일

✓ 투자판단	★★★☆☆	✓ 목표주가 (Refinitiv)	171.5 유로
✓ 상승여력	15.3%	✓ 현재주가 (6월 24일)	148.8 유로

[Global Equity Analyst]

최원석 연구위원
✉ ws.choi@shinhan.com

신한생각 | 예상치 못한 인도량 가이던스 하향, 기자재 영향 제한적

에어버스는 24일 장 마감 이후, 24년도 가이던스 하향 조정 발표. 항공기 인도 목표 800대에서 770대로 하향. 우주사업 관련 일회성 비용 9억유로가 2분기 반영되면서 24년 EBIT을 기존 6.5~7Bn유로에서 5.5Bn유로 하향. 미국 시장에서 EADSY.US 6.5% 하락. 2분기 실적 우려로 항공기자재 기업들도 2%대 하락

2024 가이던스 하향: 항공기 인도 목표 및 EBIT 하향 조정

6월 24일 장 마감 후, 에어버스 24년 항공기 인도 목표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하향. 최근 항공 엔진, 기체 객실과 항공구조물 관련 공급 이슈 발생. Spirit Aerosystems의 구조물 공급 지연과 새로운 항공 엔진 공급에서 이슈 발생. 또한 기존 항공기의 객실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체 객실 인테리어 관련 공급 이슈 발생

신규 항공기 인도 감소와 우주항공관련 프로그램의 리뷰와 함께 스케줄, 인력 조정 등의 9억유로 비용 발생으로 24년 EBIT 기존 6.5~7Bn유로에서 5.5Bn 유로 하향 조정. FCF 4bn유로에서 3.5Bn유로 하향 조정

2분기 실적 우려에도 강한 수요는 변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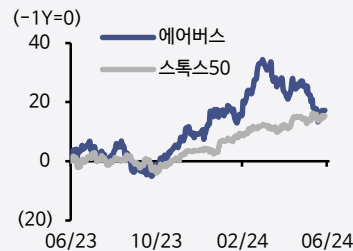
5월 항공기 인도량 감소가 2분기까지 확산되면서 엔진을 포함한 기자재 기업 2분기 실적 우려 확대. 다만, 에어버스의 EBIT 가이던스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은 우주관련 비용 확대. 항공기 인도감소는 4%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항공기자재 기업의 2분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신규 항공기 수주 모멘텀 확대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견조한 신규 항공기 수요 언급하면서 하반기 실적 우려감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

STOXX50 지수(pt)	4,951.0
시가총액(조원)	175.4
발행주식수(백만주)	787.4
유동주식비율 (%)	74.2
52주 최고가 (유로)	171.7
52주 최저가 (유로)	119.5

주요주주 (%)				
Government of France	10.8			
German Government	10.8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6.5)	(11.9)	17.3	7.1
상대	(7.5)	(15.2)	1.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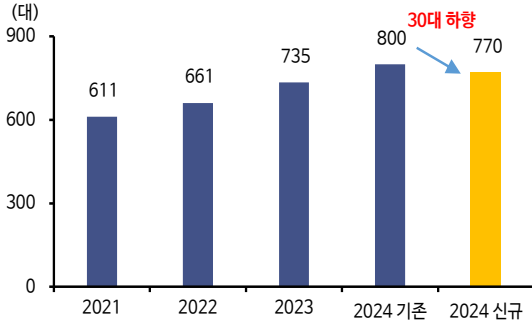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백만유로)	증가율 (%)	영업이익 (백만유로)	영업이익률 (%)	순이익 (백만유로)	EPS (유로)	증가율 (%)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FY2022	58,763	12.7	5,325	9.1	4,247	5.4	0.6	20.5	40.6	9.0	10.5
FY2023	65,446	11.4	4,600	7.0	3,789	4.8	(11.0)	29.0	32.8	6.6	15.9
FY2024F	71,378	9.1	6,545	9.2	4,857	6.4	34.0	23.1	24.4	5.7	13.1
FY2025F	80,569	12.9	8,428	10.5	6,321	8.1	26.1	18.4	27.6	4.8	10.6
FY2026F	91,318	13.3	10,249	11.2	7,862	10.0	23.8	14.8	28.2	4.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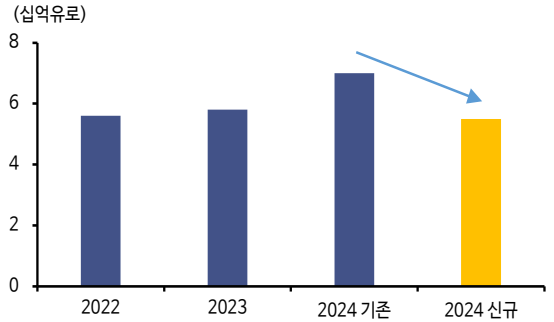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2024년 항공기 인도 목표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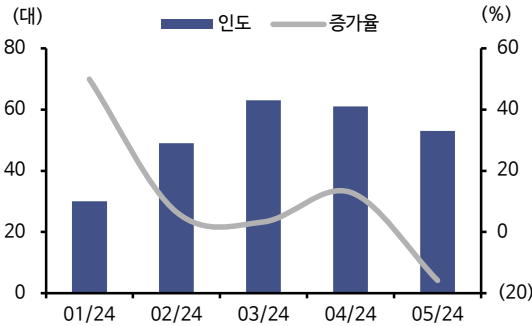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2024년 EBIT 가이드نس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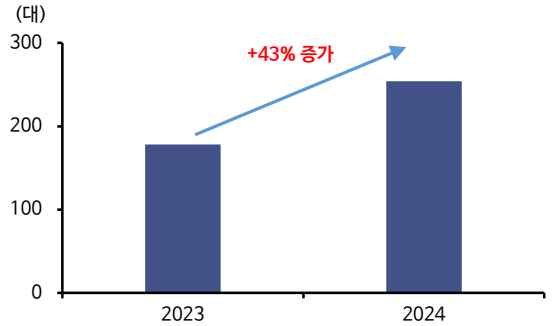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에어버스 월별 항공기 인도량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에어버스 연초 이후 항공기 신규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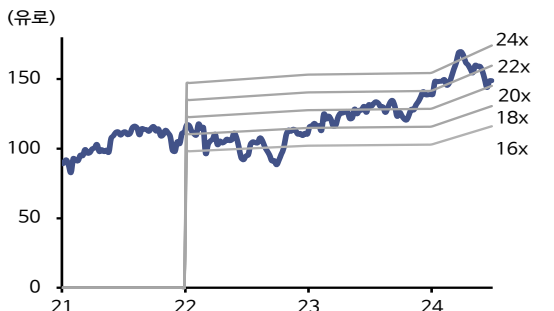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신규 수주 기대 계약

항공사	발표시기	예상물량	항공사
사우디아 그룹	2024-05-20	105	에어버스 확정
터키항공	2024-06-05	250	보잉 737 Max, 787 드림라이너
카타르항공	2024-06-03	200	에어버스 A350, 보잉 777X
세부퍼시픽	2024-06-14	150+50	에어버스 A320 neo / 50대 추가 옵션
중국항공사	2024-06-04	100	에어버스 A330neo

자료: 언론 종합, 신한투자증권

12개월 선행 PER 밴드 차트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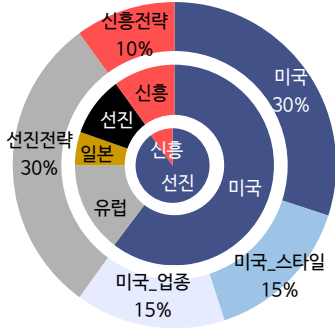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원석).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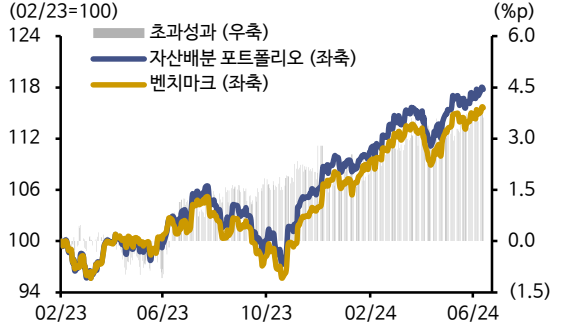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①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 글로벌 자산배분 주식 부문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주식	65.0	60.0	5.0		0.6	1.8	16.9
선진	59.0	54.0	5.0				
미국	39.5	36.0	3.5				
S&P500 ETF	27.5	24.0	3.5	SPY.US	3.2	5.1	32.4
스타일배분							
성장 ETF	3.0	0.0	3.0	VUG.US	6.0	7.8	53.0
업종 배분	9.0	0.0	9.0				
반도체 ETF	4.0	0.0	4.0	SOXX.US	8.1	14.4	76.1
인프라 ETF	3.0	0.0	3.0	PAVE.US	(4.5)	(4.1)	1.3
통신 ETF	2.0	0.0	2.0	XLCUS	1.9	3.4	0.0
기타 선진	19.5	18.0	1.5				
유럽 ETF	13.9	10.9	3.0	FEZ.US	(3.6)	(2.1)	18.7
일본 ETF	5.6	3.6	2.0	DXJ.US	(1.5)	0.4	29.4
기타선진	0.0	3.5	(3.5)				
신흥	6.0	6.0	0.0				
중국	2.4	1.9	0.5				
중국 A50	2.4	1.9	0.5	2823.HK	(6.0)	(1.2)	(1.2)
기타 신흥국	3.6	4.1	(0.5)				
한국 ETF	1.2	0.7	0.5	EWY.US	0.2	(2.2)	3.1
인도 ETF	1.1	1.1	0.0	INDA.US	3.4	9.0	24.3
신흥국 ETF	1.3	2.3	(1.0)	EEM.US	(1.9)	4.2	14.9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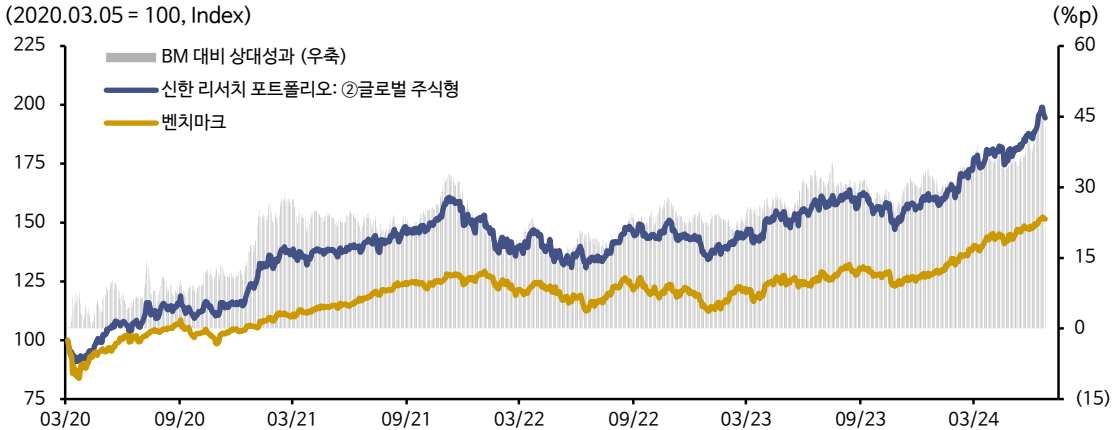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채권	27.5	30.0	(2.5)		0.2	(0.1)	(0.2)
미국 국채	5.5	6.0	(0.5)				
국채 단기	0.6	0.9	(0.4)	SCHO.US	0.2	(0.1)	(0.4)
국채 중기	3.0	3.6	(0.6)	VGIT.US	1.0	0.2	(1.2)
국채 장기	1.4	1.1	0.3	VGLT.US	2.8	1.1	(9.1)
물가채	0.6	0.5	0.1	TIP.US	0.6	0.4	(1.0)
미국 크레딧	5.5	6.0	(0.5)				
MBS	2.5	3.0	(0.5)	MBB.US	1.4	0.3	(2.5)
IG 단기	0.1	0.2	(0.1)	VCSH.US	0.3	0.1	1.7
IG 중기	1.4	1.4	(0.1)	VCIT.US	0.8	0.2	0.5
IG 장기	0.7	0.7	(0.0)	VCLT.US	1.2	(0.1)	(3.7)
HY 단기	0.3	0.2	0.1	SJNK.US	(0.1)	(1.1)	0.2
HY 중기	0.6	0.5	0.1	HYG.US	(0.0)	(0.7)	1.6
비미국	16.5	18.0	(1.5)				
전체	7.4	7.5	(0.1)	IAGG.US	0.6	0.8	3.2
선진	5.8	6.0	(0.2)	BNDX.US	0.4	(0.2)	0.8
신흥	3.3	4.5	(1.2)	EMLC.US	(3.4)	(3.6)	(4.7)
대체	7.5	10.0	(2.5)		(0.7)	0.8	2.5
상품	3.2	4.0	(0.8)				
금	0.4	0.5	(0.1)	GLD.US	(2.9)	7.9	25.1
원유	1.2	1.5	(0.3)	USO.US	3.5	2.8	15.6
산업금속	1.2	1.5	(0.3)	DBB.US	(6.9)	11.3	(2.9)
농산물	0.4	0.5	(0.1)	DBA.US	4.5	4.3	23.4
리츠	1.8	2.5	(0.7)				
물류/산업	0.7	1.0	(0.3)	INDS.US	(1.1)	(3.6)	(9.1)
미국 중소형	0.4	0.5	(0.1)	KBWY.US	(1.9)	(0.7)	(19.1)
한국 리츠	0.7	1.0	(0.3)	329200.KS	(2.2)	0.0	(1.2)
인프라	2.5	3.5	(1.0)				
미드스트림	1.8	2.3	(0.5)	AMPLP.US	(1.0)	(1.5)	14.8
디지털	0.7	1.2	(0.5)	SRVR.US	(2.9)	(5.2)	(13.5)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②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 성과



종목/테마		1D	편입 후	종목/테마		1D	편입 후
미국/선진				중국/신흥			
엔비디아	NVDA.US	(6.7)	408.5	국유기업배당 ETF	510880.SH	(1.3)	8.0
브로드컴	AVGO.US	(3.7)	100.3	베이핑화창	002371.SZ	(1.3)	11.5
이턴 코퍼레이션	ETN.US	0.6	45.1	잉웨이커	002837.SZ	(3.2)	(15.1)
일라이 릴리	LLY.US	0.7	45.0	차이나 인터넷 ETF	KWEB.US	0.4	(2.8)
메타	META.US	0.8	34.8	상해국제공항	600009.SH	(1.1)	(11.1)
아마존	AMZN.US	(1.9)	19.4	폭스콘산업인터넷	601138.SH	(3.2)	9.3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0.5)	16.1	국전남서과기	600406.SS	0.9	0.6
TSMC	TSM.US	(3.5)	9.0	ETF			
알파벳	GOOGL.US	(0.2)	19.5	나스닥100	QQQ.US	(1.3)	30.0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US	(0.9)	(2.0)	S&P500	SPY.US	(0.3)	20.5
퍼스트솔라	FSLR.US	0.9	2.9	동광 ETF	COPX.US	2.4	(1.9)
GE 버노바	GEV.US	1.4	9.4	단기채 (USD)	SHV.US	0.0	(0.1)
팔란티어	PLTR.US	1.3	16.6	단기채 (CNY)	511360.SS	0.0	8.4
코스트코	COST.US	(0.0)	0.6				

편입: 없음
 편출: 없음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월간 Top Picks



테슬라 (TSLA.US) | #모델 2, FSD 기대감 주가에 반영 시작 #8월 로보택시 행사 전까지 보유

편입일 2024-04-26 · 2024년 실적과 전기차 판매량 가이드선 제시하지 않아 추가 하락 후 반등. 모델2, FSD 기대감 반영 시작
 누적수익률 8.1% · 8월 8일 로보택시 행사에서 모델 2의 자세한 출시 일정 공유 예상. 기대감 반영되는 동안 추가 상승 가능



버티브 (VRT.US) |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 75% #Nvidia와 냉각 솔루션 개발

편입일 2024-03-01 · AI로 인한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Q1), 서버당 전력 사용량 증가로 관련 기자재 모두 스펙 향상 필요(P1)
 누적수익률 30.3% · 2Q24 OPM +16.9%(+4.1%p) 제시. 중장기 OPM +20% 목표. 매 분기 시장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 전망



일라이 릴리 (LLY.US) |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FDA 자문위 개최 #중국 당뇨/비만약 승인

편입일 2024-01-04 · 중국에서 당뇨/비만약 치료제 승인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비만약 판매 증가 모멘텀 지속
 누적수익률 45.0% · 6월 10일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FDA 자문위 코멘트 높은 관심. 추가 상승 모멘텀에 결정적 요인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 #코파일럿 수익화 #AI 탑재 PC 출시 #Azure 클라우드 고성장

편입일 2024-01-11 · 데이터분석/개발도구 등 AI 인접 서비스가 Azure와 함께 사용량 증가. 1위 업체 AWS와 점유율 격차 축소
 누적수익률 16.1% · 5월 말 AI가 탑재된 Copilot Plus PC를 출시해 상업용 PC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 수요 가속 기대감 건인



엔비디아 (NVDA.US) | #주도주 #AI 칩은 여전히 공급 부족 #빅테크 투자 확대

편입일 2023-02-24 ·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상회. 성장 가시성 가장 뚜렷해 이익추정치 추가 상향 기대감 유효
 누적수익률 408.5% · 대만 컴퓨텍스 2024에서 차세대 제품 및 AI 솔루션 대거 발표. AI 시장 주도권 선점 장기간 전망



브로드컴 (AVGO.US) | #AI 서버 수혜주 #고속 네트워크 수요 증가 #DPS 우상향 가치주

편입일 2023-05-30 · AI 어플리케이션 확산 속 800G 네트워크 솔루션(스위처, 가속기 판매) 업그레이드 수요 지속될 전망
 누적수익률 100.3% · AI 추론 수요 확대에 필요한 커스텀 IC(ASIC) 설계 수요 증가, 구글/메타 등 주요 고객사 확보 긍정적



베이팡화창 (002371.SZ) | #반도체 국산화 #정부 반도체 3기 펀드 #미국 반도체 규제

편입일 2024-03-14 · 중국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 전공정 열처리 장비 1위, 증착/식각 장비에서도 로컬 업체 중 최상위
 누적수익률 11.5% ·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 3기 조성 + 1Q24 전방 고객사 합산 CapEx +90% 증가에 따른 수혜



잉웨이커 (002837.SZ) | #AI 전력 인프라 #중국판 버티브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편입일 2024-04-26 · 1Q24 매출액 +41.4%YoY, 지배주주 순이익 +146.9% YoY 고성장 시현하며 실적 서프라이즈
 누적수익률 (15.1%) · 중국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 전기차 충전 설비 수요 증가 지속되며 역대급 수주 잔고 쌓이는 중



히타치 (6501.JP) | #AI 투자 #전력망 투자 #DX #GX

편입일 2024-06-04 · 글로벌 AI 투자 및 전력망 투자 증대로 4QFY23 관련 수주잔고 증가. 일본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 추진
 누적수익률 (6.6%) · 4QFY23 자동차 부품사 지분 매각으로 핵심 3개 사업부로 사업 재편하면서 FY24년 수익성 개선 전망



미국 헬스케어 (XLV.US) | #6월 주요 이벤트 예정 #ASCO 제약/바이오, ADA 당뇨/비만 기법

편입일 2024-06-04 · 6월 학회, 컨퍼런스 등 주요 이벤트 예정. ASCO에서 임상 결과 발표는 제약/바이오 기업 추가 상승 재료
 누적수익률 1.1% ·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차세대 비만약 임상 결과 발표 가능성 존재. 당뇨 관련 의료기기 기업에 호재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리서치센터 해외주식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식과 ETF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이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 변경은 주가 수익률 변화의 변동 상황 발생 시 진행되고 있으며 비중 및 편-출입은 상승과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투자 권유나 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입 이후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BM)는 MSCI AC World Index(70%) + Bloomberg Barclays World Bond Index(30%)입니다.
- 상기 중목 정보는 FnGuide, Bloomberg 및 WIND(중국, 홍콩)의 정보와 컨센서스 및 각 ETF 운용사 제공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 주가(각국 통화 기준)는 각 시장의 직전거래일 기준 증가입니다. (단, 미국 및 유럽 주식, 해외 상장 ETF의 주가는 전전거래일 증가 기준)
- 수익률은 편입일의 증가 대비 직전거래일 증가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단, 미국 및 유럽 주식, 해외 상장 ETF는 전전거래일 증가 기준)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상기 회사(예를 들어 피스톡,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기투자(소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의 중목은 회사(외)에 대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사 정책에 따라 주가변경이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③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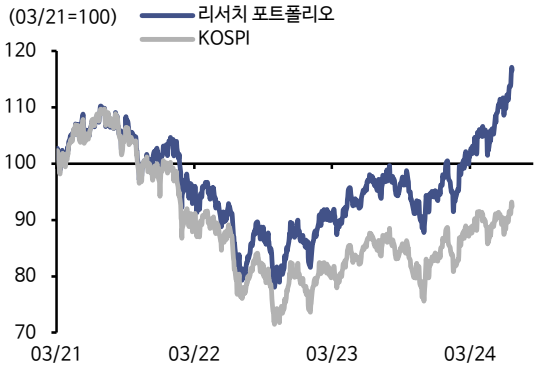
6월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섹터	업종	코드	종목명	업종			종목	
				비중	제한 비중	차이	비중	전주 차이
				(A)	(B)	(B-A)		
에너지				1.8	1.4	(0.4)		
	에너지	A010950	S-Oil	1.8	1.4	(0.4)	1.4	0.0
소재				7.7	6.8	(0.9)		
	화학	A011780	금호석유	4.6	4.2	(0.3)	1.4	(0.0)
		A051910	LG화학				1.0	(0.1)
		A298020	효성티앤씨				1.0	(0.1)
		A298050	효성첨단소재				0.9	0.0
	비철,목재등	A010130	고려아연	1.1	0.9	(0.2)	0.4	0.0
		A006260	LS				0.4	0.0
	철강	A005490	POSCO홀딩스	2.0	1.6	(0.4)	1.1	(0.1)
		A001430	세아베스틸지주				0.3	(0.0)
		A004020	현대제철				0.3	(0.0)
산업재				14.3	14.6	0.3		
	건설,건축관련	A294870	HDC현대산업개	1.5	1.2	(0.3)	1.2	(0.0)
	기계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3.1	3.4	0.3	3.4	0.1
	조선	A329180	HD현대중공업	2.4	2.7	0.3	2.7	0.0
	상사,자본재	A047810	한국항공우주	4.8	4.9	0.0	1.3	0.0
		A028260	삼성물산				1.7	0.1
		A034730	SK				1.9	(0.2)
	운송	A086280	현대글로벌비스	2.4	2.3	(0.1)	2.3	0.0
경기관련소비재				11.5	11.3	(0.2)		
	자동차	A005380	현대차	7.5	8.0	0.4	5.0	0.1
		A000270	기아				3.0	0.0
	화장품,의류,완구	A090430	아모레퍼시픽	2.4	2.8	0.4	0.7	(0.0)
		A051900	LG생활건강				0.6	(0.0)
		A192820	코스맥스				0.9	0.0
		A114840	아이패밀리에스				0.7	(0.1)
	호텔,레저서비스	A034230	파라다이스	0.3	0.0	(0.3)	0.0	0.0
	미디어,교육	A035760	CJ ENM	0.7	0.4	(0.3)	0.2	(0.0)
		A352820	하이브				0.2	(0.0)
	소매(유통)	A004170	신세계	0.7	0.2	(0.5)	0.2	(0.0)
필수소비재				2.3	2.7	0.4		
	필수소비재	A003230	삼양식품	2.3	2.7	0.4	1.4	0.0
		A097950	CJ제일제당				1.3	(0.1)

섹터	업종	코드	종목명	업종			종목	
				비중	제한 비중	차이	비중	전주 차이
				(A)	(B)	(B-A)		
의료				6.2	6.2	0.0		
	건강관리	A196170	알테오젠	6.2	6.2	0.0	2.0	0.9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				1.8	(0.8)
		A068270	셀트리온				1.2	(0.8)
		A000100	유한양행				1.2	0.5
금융				10.0	10.4	0.4		
	은행	A055550	신한지주	5.8	6.0	0.2	3.3	(0.0)
		A086790	하나금융지주				2.7	(0.0)
	증권	A005940	NH투자증권	1.8	1.7	(0.1)	1.7	0.0
	보험	A005830	DB손해보험	2.4	2.6	0.2	1.4	0.1
		A000810	삼성화재				1.3	0.1
IT				43.9	44.4	0.5		
	소프트웨어	A192080	더블유게임즈	4.6	4.6	(0.0)	1.3	(0.0)
		A067160	SOOP				1.6	0.0
		A263750	필터비스				1.0	(0.0)
		A194480	테비스시스템즈				0.7	0.0
	IT하드웨어	A009150	삼성전기	1.4	1.6	0.2	0.6	(0.0)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0.6	(0.0)
		A148150	세경하이테크				0.2	(0.0)
		A236200	슈프리마				0.2	(0.0)
	반도체	A005930	삼성전자	31.2	31.6	0.5	22.2	0.2
		A000660	SK하이닉스				8.1	0.4
		A074600	원익QnC				0.2	(0.1)
		A042700	한미반도체				1.0	(0.2)
		A039030	이오테크닉스				0.1	(0.1)
	IT가전	A066570	LG전자	6.4	6.2	(0.2)	1.0	0.1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2.3	(0.2)
		A006400	삼성SDI				2.3	(0.0)
		A450080	에코프로머티				0.5	(0.1)
	디스플레이	A213420	덕산네오룩스	0.3	0.4	0.1	0.4	0.0
통신서비스				1.1	1.0	(0.1)		
	통신서비스	A030200	KT	1.1	1.0	(0.1)	1.0	0.0
유틸리티				1.2	1.3	0.1		
	유틸리티	A015760	한국전력	1.2	1.3	0.1	0.4	(0.1)
		A036460	한국가스공사				0.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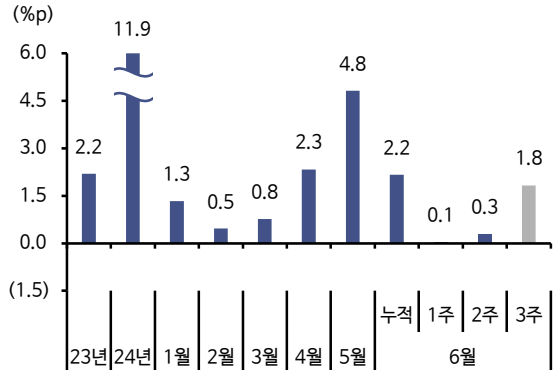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 주: 업종 분류는 FnGuide W126 기준, 6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

🔥 KOSPI와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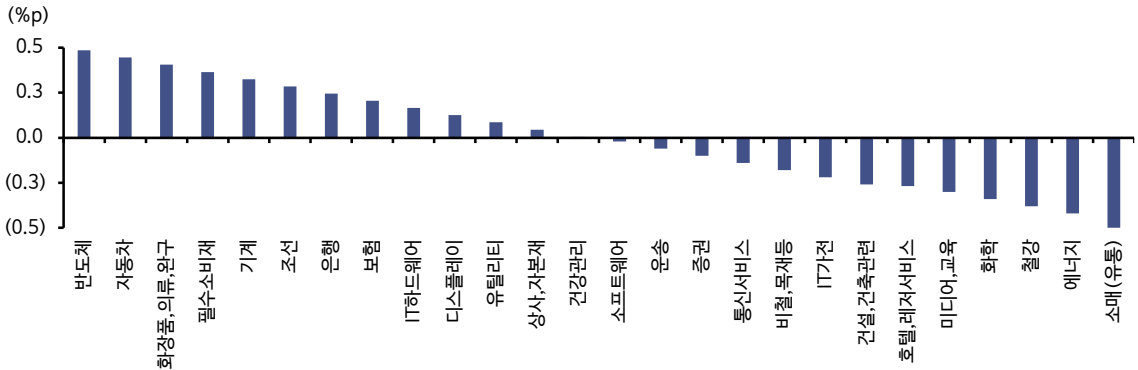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상대수익률



자료: 신한투자증권

🔥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KOSPI 대비 업종 비중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VS 소매(유통), 에너지, 철강↓]



자료: 신한투자증권

[반도체] 상반기 AI 관련 선단 공정 위주 가동률 점진적 회복 기대, 하반기 세트 수요 회복 동반되며 상저하고의 흐름 전망
 - SK하이닉스: 연간 CapEx 가이드스 상향 조정, HBM Capa 확대되며 시장 지위 견고해질 전망, NAND 흑자 전환 성공. 최근 메모리 현물가 일부 하락 기조 있으나 하반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수요 반등 전망

[자동차] 내수 둔화에도 선진국 중심 견조한 판매 지속, 현대차 인도 법인 IPO로 인도 비중 높은 부품사 모멘텀 수혜
 - 현대차: 하이브리드 및 SUV 차종 선전 중, 인도 법인 IPO 본격화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잔존

[화장품] 인디 저가 화장품 브랜드 중심으로 내수와 수출 실적 견조, 2Q24 실적 대부분 QoQ 성장 혹은 최소 flat할 전망
 - 아모레퍼시픽: 국내 유통채널 믹스 개선에 따른 영업마진 회복세. 전 브랜드 리뉴얼 성과와 북미향 익스포저가 큰 코스알엑스 실적 기대치 상향으로 톱업. 중국 적자 해소 등 호재 대거 대기 중

추천 종목

중소형주

티앤엘 (340570)		KDQ
주가 (원)	7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예상, 블랙프라이데이 및 크리스마스 물량 소화 ◆ 미국내 침투율 20% 미만에 불과, 지점 확대 가능성 유효 ◆ 마이크로니들, 의료용 대마 등 신성장 모멘텀 보유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2.4%	
상대수익	4.6%p	
토비스 (051360)		KDQ
주가 (원)	2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브드 모니터, 버튼덱 등 신제품 출시 활발 ◆ 현재 카지노용 모니터 M/S 1위, 4개 주요 고객사와 모두 거래 중 ◆ 가파른 전장용 매출액 상승,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고객사 4곳 확보 완료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0.4%	
상대수익	1.8%p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337930)		KDQ
주가 (원)	6,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동기인 중국 애슬레저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중 ◆ 3Q24 중국 정식 오프라인 매장 출점 본격화 ◆ 중국 이익기여로 영업이익의 레벨 상향 기대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5.1%	
상대수익	7.3%p	
코스메카코리아 (241710)		KDQ
주가 (원)	7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인디뷰티 브랜드 수요 강세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중 ◆ 국내 실적 강세, 지역별 매출 다각화로 실적 눈높이 상향 ◆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단기, 중장기 매력도 상승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3.1%	
상대수익	-0.9%p	
대한유화 (006650)		KSP
주가 (원)	14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규환신 등 중국 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스프레드 개선세 지속 ◆ 유가 안정화, 재고 축적 수요, 공급 부담 감소 등으로 하반기 시장 회복 전망 ◆ 그럼에도 역사적 저점 수준의 PBR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상황
추천일	24년 6월 12일	
수익률	-10.8%	
상대수익	-13.3%p	
태광 (023160)		KDQ
주가 (원)	13,5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주 바닥 통과, 2Q24부터 신규수주 증가세로 전환 ◆ 미국 LNG 및 중동 정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확대 ◆ 동해 석유, 가스전 시추는 당장의 실적 기여가 없겠지만 기대감에 따른 긍정적 시각 유지
추천일	24년 6월 7일	
수익률	7.2%	
상대수익	8.2%p	

인카금융서비스 (211050)		KDQ
주가 (원)	5,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Q24 OP 184억원(+64% YoY), NP 124억원(+53% YoY), 어닝 서프라이즈 ◆ 오랜 영업 노하우 기반 빠른 설계사 수 준증이 가장 큰 장점 ◆ 설계사가 빨리 늘어나는 GAG 시장 선점에 무조건 유리
추천일	24년 5월 20일	
수익률	-9.9%	
상대수익	-8.4%p	
원익QnC (074600)		KDQ
주가 (원)	36,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실적 반등 시기 도래 → 계단식 성장 전망 ◆ 2023년에 이어 자회사 실적 개선 효과 본격화 ◆ Cycle 회복에 따른 반도체 부품 업체 수혜 기대
추천일	24년 3월 7일	
수익률	24.3%	
상대수익	27.6%p	
파라다이스 (034230)		KDQ
주가 (원)	14,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사상 최대 실적 vs. 신저가 ◆ 인스파이어 IR 개장이 리스크, 2/3 인스파이어 카지노 오픈 → 리스크는 노출된 상황 ◆ 2월 카지노 숫자도 전혀 훼손 없이 견고한 숫자를 기록해 '바텀 아웃' 기대
추천일	24년 3월 4일	
수익률	12.3%	
상대수익	15.9%p	
SOOP (067160)		KDQ
주가 (원)	110,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영향 없이 성장하는 후원경제와 BTL 수요 증가 수혜 받을 콘텐츠형 광고 긍정적 전망 ◆ 트위치 TV 한국 철수와 동사의 해외진출 통해 트래픽 및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 인플루언서 콘텐츠 영향력 커짐에 따라 광고 및 트래픽 수혜로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 높음
추천일	24년 1월 31일	
수익률	4.9%	
상대수익	1.2%p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는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 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차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포트폴리오 변경은 주가 수익률 변화와 변동 상황 발생 시 진행하고 있으며 비중 및 편·출입은 상승과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투자 권유나 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입 이후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 국내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BM)는 KOSPI(100%)입니다.
- ◆ 중소형주 추천 종목은 추천일 직전거래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3조원 미만의 종목입니다.
- ◆ 주가는 직전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일부 종목 정보는 FnGuide를 참고하였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신한지주)와 계열회사 관계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NAVER,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POSCO홀딩스, 현대차,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카카오, 카카오뱅크)를 기초자산으로 ELWG가 발행된 상태이며,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LG디스플레이, LG전자, NAVER, SK,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국전력,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고려이연, SK, 현대차, LG전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영원무역)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편출]

- ◆ 없음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일정

월		화		수		목		금	
6/24		6/25		6/26		6/27		6/28	
한	5월 소매판매 경남계약 거래정지 (~7/18)	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세계 태양에너지,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	미	5월 신규주택매매 5년 만기 국채 입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이키 실적발표(6/27)	한 일 중	효성 거래정지(~7/28) 5월 소매판매 5월 산업생산 5월 공업기업이익	한 일 중 유 미	5월 관광통계 6월 도쿄 CPI 6월 NBS PMI(6/30) 프랑스 조기총선(6/30) 5월 PCE 6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6월 미시간 1년 인플레이
7/1		7/2		7/3		7/4		7/5	
한	휴강(홍콩) 6월 수출입동향 6월 제조업 PMI 6월 제조업 PMI(확) 6월 Caixin 제조업 PMI 6월 제조업 PMI(확) 6월 ISM 제조업	한	6월 CPI 6월 외환보유액(7/3)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 강비 수출 통제(7/1) 6월 CPI(예) 5월 실업률 5월 구인이직보고서	미	조기폐장(미국) 6월 서비스, 종합 PMI 6월 Caixin 종합 PMI 6월 Caixin 서비스업 PMI 6월 서비스, 종합 PMI 6월 챌린저 Job Cuts 6월 ADP 취업자 변동	유 미	휴강(미국) 영국 조기 총선 6월 서비스 PMI(7/3) 6월 종합 PMI(7/3) 6월 ISM 서비스(7/3) 5월 내구재주문(7/3) 6월 FOMC 회의록	일 유 미	5월 가계 소비지출 5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EU,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7/4) 5월 소매판매 6월 고용동향보고서
7/8		7/9		7/10		7/11		7/12	
		미	5월 소비자신용 6월 NFB 소기업 낙관 3년 만기 국채 입찰	한 일 중 미	6월 실업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6월 PPI 6월 CPI, PPI 10년 만기 국채 입찰	한 미	7월 1~10일 수출입동향 금융통화위원회 6월 CPI 30년 만기 국채 입찰	중 미	6월 수출입동향 6월 PPI 미시간 소비자신뢰, 소비 자기대, 1년 인플레이
7/15		7/16		7/17		7/18		7/19	
중 유 미	휴강(일본) 6월 신규주택가격 2Q24 GDP 6월 광공업생산, 소매판 매, 고정자산투자 5월 산업생산 공화당 전당대회	일 유 미	6월 백화점 판매 7월 ZEW 서베이 6월 소매판매 5월 기업재고	유 미	6월 CPI 6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배지북 공개 20년 만기 국채 입찰	일 유 미	6월 수출입 동향 6월 신규 차량등록 6월 CB경기선행지수	일 미	6월 전국 CPI 유럽만기일
7/22		7/23		7/24		7/25		7/26	
한 중	7월 1~20일 수출입동향 LPR 금리 결정	한 미	6월 PPI 6월 기존주택매매	한 일 유 미	7월 소비자심리지수 7월 PMI(예) 7월 PMI(예) 7월 PMI(예) 6월 신규주택매매 2Q24 GDP	한	2Q24 GDP	일 중 미	7월 도쿄 CPI 6월 공업기업이익, 산업생산(7/27) 6월 PCE 7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6월 미시간 1년 인플레이

자료: Marketpoint, 언론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예): 예비치, (수): 수정치, (확): 확정치

신한아이 화면번호 안내



[주식/시황 정보]

0100	1054	1058	1059
주식종합	지수추이	주요 거래지표	증시자금 추이
1110	1503	1863	3101
현재가종합	업종별시세	주가등락률 상하위	시황티커
4050			
파워차트			

[선물]

2000	2450	4101	
지수선물 현재가	상품선물옵션 현재가	KOSPI 선물/옵션 분봉	

[수급 정보]

1200(당일)/1203(일자별)	1205	1306	1314
투자주체별 순매수 금액	업종별 투자주체	실시간 외국계 매매종목	외국인/기관 (장중) 매매현황 추정
1407	1457	1670	1881
투자주체별 매도/매수 상위 종목	투자자별 프로그램매매	종목별/일별 대차거래 내역	공매도 일간/누적 상위종목
4540			
장중 투자주체별 매매 추이 (Light)			

[환율/금리/원자재]

3204	3213	3214	
환율 동향	원자재 동향	국내외 금리	

[국내 포트폴리오/리서치 정보]

3150	3154		
신한아이 리서치	리서치 종목 시세		

🔥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본자료는 2024년 6월 25일 공표한 자료와 2024년 6월 26일 공표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종목	매수		섹터	비중확대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축소
	중립: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4년 06월 24일 기준)

매수 (매수)	93.77%	Trading BUY (중립)	4.28%	중립 (중립)	1.95%	축소 (매도)	0.00%
---------	--------	------------------	-------	---------	-------	---------	-------